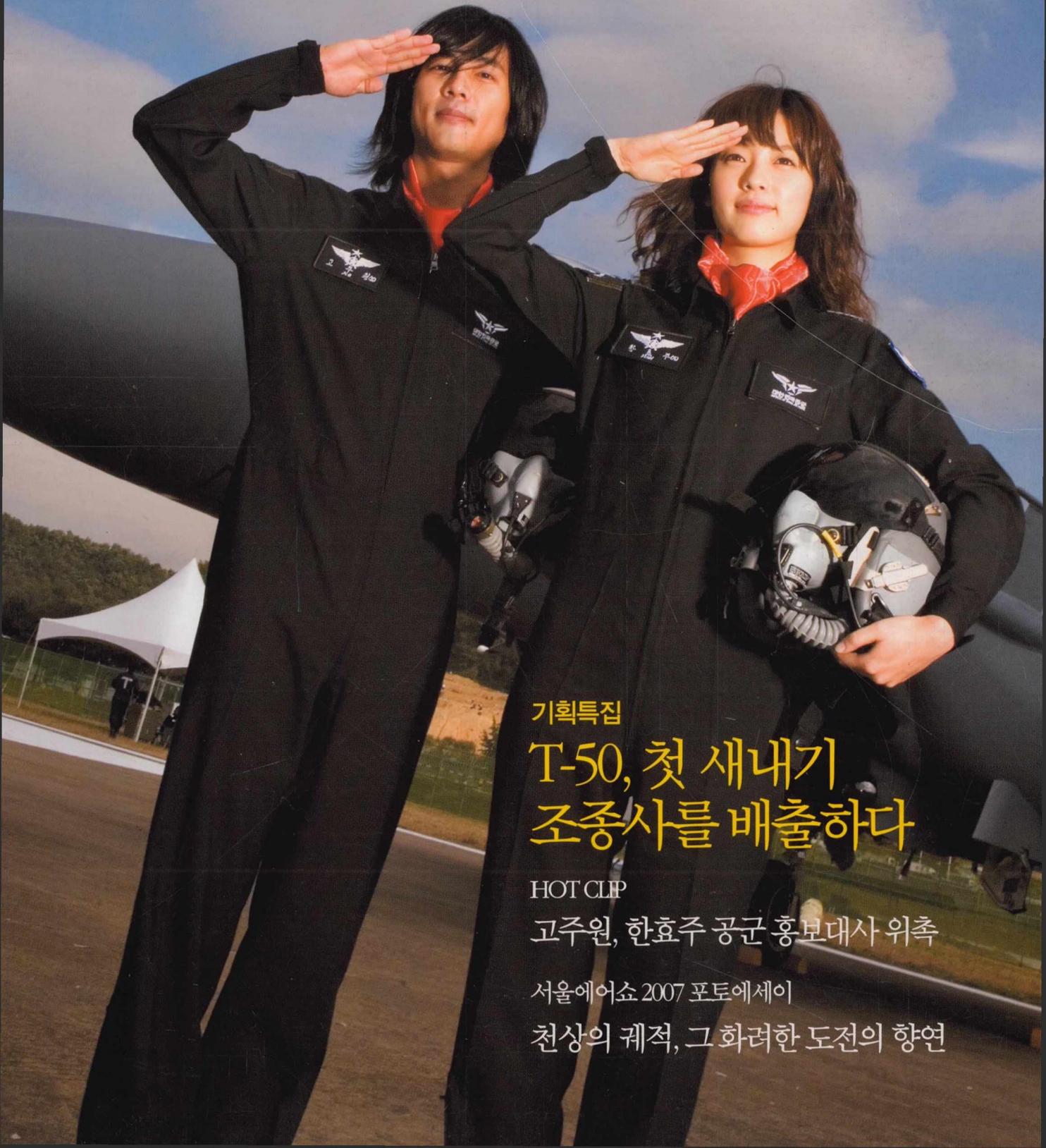


2007.11

www.airforce.mil.kr Vol.353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T-50, 첫 새내기 조종사를 배출하다

HOT CLIP

고주원, 한효주 공군 홍보대사 위촉

서울에어쇼 2007 포토에세이

천상의 궤적, 그 화려한 도전의 향연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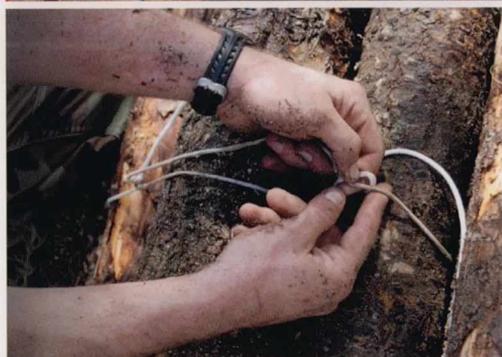
- 고정희 시집 『아름다운 사람 하나』, 푸른숲

〈시 해설〉

시드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우리도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꽃은 피고 새순은 돋을 것입니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는 것이므로, 캄캄한 밤이라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을 것이므로

- 시인 도종환

* 고정희 : 1948년 전남 해남 출생. 한국신학대학 졸업.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문단에 나옴. 시집 〈초혼제〉 〈눈물꽃〉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등을 남겼으며, 1991년 세상을 떠났다. 유고시집으로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가 있다.



※ 표지설명 : 공군을 일리는 새로운 얼굴,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고주원·한효주

표지 : 김윤해, 뒤표지 : 중위 이영원

공군 November 2007 No.353

발행일자 | 2007년 11월 2일(통권 제353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제연, 이병 이호용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7.11

www.airforce.mil.kr Vol.353

- 04** 기획특집 _ T-50, 첫 새내기 조종사를 배출하다
 Sketch 1 _ 골든 이글로 첫 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Sketch 2 _ "T-50 = 하이테크 + 통합훈련체계"
- 10** 서울에어쇼 2007 포토에세이 _ 천상의 궤적, 그 화려한 도전의 향연
- 14** Bird Alert! _ 가을하늘을 수놓는 천수만의 가창소리
- 17** World-Wide Vision _ 미공군인들의 극한 생존능력 육성
- 20** e-Sports <ACE> _ 윈 손은 거들 뿐
- 22** HOT CLIP! _ 고주원, 한효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
- 24** 참모총장 스케치
- 26** 공군은 지금
- 30** 부대동정 _ 20비,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 31** 11월의 공군 역사
- 32** 여기는 다이만 _ USAF, ROKAF join forces in the sandbox
- 34** In Time Capsule _ Rainbow Day 타임캡슐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 36** SPACE AIRFORCE _ 공군·과학기술부가 함께 열어가는 우주시대
- 40**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내가 만난 스타와 명연
- 42** INTERVIEW _ 신임 2대 항공소년단 사무총장과와의 만남
- 44** 동아리 소개 _ 공사 로봇항공기 프로젝트팀 '마하수리'
- 45** 시가 있는 풍경 _ 절벽(絶壁)
- 46** 지휘관기고 _ "도전이 있는 곳", 제18전투비행단
- 49** PREVIEW _ 11월의 문화행사
- 50** 생각하는 그림 _ 배려의 힘
- 5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영화 「카핑 베토벤」을 통해 반추해 보는 베토벤의 열정
- 54** Stimulate Us! _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 55** 책마을 _ 그대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
- 56** INFORMATION _ 제10회 공군력 국제 학술 회의

T-50, 첫 새내기 조종사를 배출하다

Sketch 1_골든 이글로 첫 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Sketch 2_“T-50 = 하이테크 + 통합훈련체계”

글 김희연 | 사진 김윤해
취재·촬영협조 제1전투비행단

Sketch 1_만남

제1전투비행단 203대대
교관 조종사 홍주현 대위
학생 조종사 김기현/박현식 중위

골든 이글로 첫 고등훈련 마친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다

T-50(일명 골든 이글)으로 첫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탄생한다. T-50 훈련 1기라 할 수 있는 열두 명의 학생 조종사들은 지상 7주, 비행 28주의 전 35주 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이후 2기 열다섯 명을 비롯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1기 교육과정에서 교관 조종사를 맡았던 홍주현 대위(공사 46기)와 학생 조종사를 거친 김기현/박현식 중위(공사 54기)를 만났다.

- 교관이신 홍 대위님은 정식으로 조종사가 되기 전에 어떤 항공기로 고등훈련을 받으셨나요? T-50과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홍주현(교관) 제가 학생 조종사였을 때는 영국제인 T-59로 고등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T-50 고등훈련을 맡은 서른 명의 교관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전 훈련을 거쳤습니다. 조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T-50이 전자 장비나 항공 역학적 측면에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종사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학생 조종사들은 T-50으로 첫 훈련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T-50을 타 본 느낌이나 교육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습 중인 T-50
훈련 1기생들



박현식(학생) 기존 고등훈련기로 훈련을 받고 있는 동기들로부터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전투기를 조종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김기현(학생) 훈련 중에는 열심히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50 고등훈련 1기로서 여러 교관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훈련을 하는 동안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떤 점을 어려워하던가요?

홍주현(교관) 학생들의 성격, 능력, 성향에 따라서 습득 속

도가 다릅니다. 학생에 맞춰서 모두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훈련 내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특히 이착륙 시 위험요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음속 항공기인 T-50의 경우, 3차원 공간에서 높은 속도를 내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을 겁니다.

-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특이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박현식(학생) 아무래도 제가 실수했던 일이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지상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비행 시



입력된 정보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형지물을 보고 좌표를 판단하여 비행을 해야 했던 위험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김기현(학생) 뒷자리를 비우고 단독 비행에 나선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내 손으로 T-50을 움직일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홍주현(교관) 한 개의 에피소드를 뽑기 어려울 정도로 매일 매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몰랐던 부분이지요. 학생들이 아무리 전문서적을 탐독한다 해도 실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 순간 교관이 잘 살펴야 합니다.

- 담당 교관 가운데 굳이 기억에 남는 분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박현식(학생) 저는 학생 조종사 중에서 공부 전담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차반(先次班)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표준을 잡아주셨던 담당 교관 제3편 대장 정홍구 소령님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홍주현(교관) 교관인 저도 학생 조종사 시절에는 정 소령님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 T-50 첫 훈련을 마친 학생 조종사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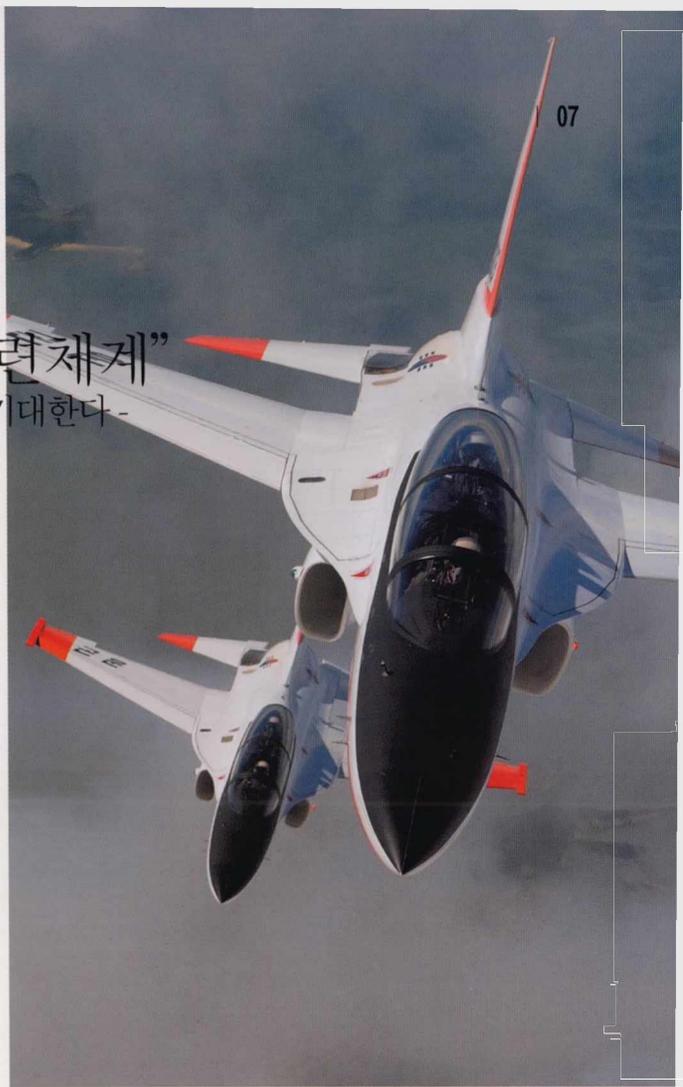
김기현, 박현식(학생) 훈련 전만 해도 T-50을 다룬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딴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교육 과정을 마치고 보니 부푼 기대감만큼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T-50 훈련 1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훌륭한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Sketch 2_기대

“T-50 = 하이테크 + 통합훈련체계”

- 통합훈련체계 갖춘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수출을 기대한다 -

글 김희연 | 사진 Katsuhiko Togunaga
취재 · 촬영협조 제1전투비행단



지난 10월 열린 제6회 한국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에어쇼 2007)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A-37B의 고별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T-50이었다. T-50은 한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사업의 결과이자, 세계 유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훈련기 사상 최초로 첨단 디지털 항공전자/무장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점이 T-50의 특징이다. T-50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전투 시에 꼭 필요한 초음속 비행을 훈련할 수 있는 기동 능력을 확보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동시공학 적용한 군용기

T-50은 개발 초기부터 통합훈련체계(Total Training System)로 개발되었다. 항공기, 훈련체계, 군수지원체계를 아우르며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공군의 보유 및 발전 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전투대에서 훈련할 때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4~5세대 전투기급에 맞는 성능과 능력을 보였다. 더불어 KT-1급 항공기에서 수료한 학생 조종사들이 적응하기 쉽게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T-50 개발 사업은 1997년 10월에 시작되어 만 4년만인 2001년 10월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8월에는 양산 1호기가 출고되었고, 같은 해 11월 두바이에어쇼에서 최고 참가업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1월에는 T-50에 레이더, 기총, 탄약을 장착한 TA-50 무장시험이 완료되면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약 9년에 걸친 개발 사업을 통해 전술 입문기인 TA-50를 기본으로 고등훈련기인 T-50 외에 경공격기인 A-50이 탄생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 내에 개발이 완료된 것만으로도 놀라움을 던져 주기에 충분했다. T-50 개발 사업은 1997년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팎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만 했다. 기술을 지원한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측에서도 설계도면 작업이 정해진 일정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예상했으나, 결국 제 날짜를 앞당겨 완료한 바 있다. 이때 설계 엔지니어들이 연일 밤샘 작업을 하느라 주변 야식집이 때아닌 대목을 맞았다는 뒷이야기가 전한다.

이렇듯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동시공학(同時工學, Concurrent Engineering)이 큰 힘을 발휘했다. T-50은 세계 최초로 동시 공학을 완벽하게 적용한 군용기다. 100% CATIA(컴퓨터 설계 프로그램)를 활용했고, COMOK(Computer Mock-Up)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며 전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동시공학과 COMOK 기법은 기술을 지원한 록히드 마틴에서 역으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수준을 자랑했다.



조종사에게 최적의 환경 구축

개발을 완료한 T-50은 조종사가 비행에 나서기에 편안한 환경을 구축했다. 각종 첨단장비와 무장들로 인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고등훈련기는 전투기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 시스템과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때문에 HUD(Head-Up Display), Color MFD(Multi-Function Display) 등 T-50의 최신 항전장비는 조종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시험비행 조종사로 참여한 최정욱 소령(52시험평가전대)은 “평가 비행에서 모든 조종사들이 후방석의 도움 없이 이착륙을 수행할 수 있었을 만큼 전투기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 소령은 특히 통합훈련체계로 개발된 T-50의 장점을 강조했다. “항공기는 그 자체로서도 우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터, CBT 등 우수한 지상 교

육 시스템이 실제 비행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T-50은 T-50 개발 과정의 일부인 시험비행에 참여한 우리 조종사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 항공 전문 잡지인 영국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요청으로 평가 비행을 했던 콜린스 피터 제임스 씨는 시승을 마친 후 “한국 공군의 T-50은

T-50에 탑승한 '국민 조종사' 문남근 씨와 그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들 사진 중사 편보현



최신에 전투기와 고등훈련기의 현격한 성능 차이를 줄임으로써 운용비용과 비효율성을 낮춘 유일한 훈련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 조종사 외에 특별히 국민 조종사로 선발되어 서울에 여쇼 2007에서 T-50을 시승한 일반인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문남곤 씨는 공군 예비역 병장 출신으로 T-50을 직접 타 본 후 큰 감동을 전했다. “천국에 갔다 온 느낌인데,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지네요. 조종사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국방력 강화 외에 산업 증진 효과 증대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T-50 훈련체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텔(Tea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약 1,000대(약 300억 달러 수준)의 T-50이 수출될 전망이다. T-50은 현존하는 차세대 고등훈

련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될 만한 개발 계획도 없어 시장 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산업은 그 자체의 수출 경쟁력 외에도 연관 산업에 막대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기에는 기계·전자·소재 등에서 자동차보다 열 배가 많은 2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또 원자재 투입에 비해 완제품의 가격이 월등히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항공기 산업으로 인해 연인원 2만 명의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T-50의 개발은 우리 공군에게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T-50은 국산화율 61%에 국내외 특허출원 437건, 특허등록 127건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다. T-50으로 인해 독자적인 무기 체계 확립을 통한 기술 안보 역량과 첨단 전투기 지속 개발이 보장된 것이다. (A)



T-50 시뮬레이터

천상의 궤적, 그 화려한 도전의 향연

쏟아질 듯 한꺼번에 내려와 사방으로 갈라지는 레인 폴(Rain Fall), 하늘에 거대한 리본모양을 만들어내는 스플릿-에스(Split-S)까지. 창창한 가을햇살을 등지고 편대를 이룬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광활한 가을창공을 화려히 수놓는다. 유려한 회전곡선과 스모크(Smoke)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물결, 그리고 아찔한 교차의 순간들은 서울공항 비행관람대를 찾은 이들의 가슴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하다.

원고정리 편집실 | 사진 김윤해 · 중사 성지용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일제히 고개를 하늘로 젖힌 어른부터, 두 날개를 펼치며 시원스레 하늘을 질주하는 T-50의 궤적을 따라 손가락으로 저마다의 꿈을 그려보는 어린아이까지. 먼 훗날 이들이 꿈꾸는 세계가 저 심원한 가을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향연처럼 거침없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사람마다 인생의 궤적은 그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간다고 했던가?

13년 전, A-37B 8대로 팀을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총 265회의 곡예비행을 실시해온 블랙이글스 비행팀. 이날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자랑스러운 한국곡예비행의 현존하는 역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설 새 없이 고막을 때려대는 요란한 굉음속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카타르시스의 묘미를 한껏 선사하기에 충분하였다.



앙드레 김이 직접 디자인하여 박명렬, 박인철 부자 조종사의 위국헌신을 한양한 작품이다. 진한 붉은 색은 한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으로 조국과 하늘에 목숨을 바치는 절대 필승의 투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복을 통해 현대적이며 유연한 공군문화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민군이 함께 다가서고자 기획된 「Aerostar 패션쇼 2007」은 패션 디자이너 이기오 씨가 직접 디자인한 미래의 공군 제복 컨셉들과 다양한 공군군복을 소개하였다. 나름의 디테일함과 정제된 미를 유지하며 맛깔진 조화의 참맛을 살려내 쇼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공군홍보관에 비치된 명품 ‘빨간 마후라’는 세계적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직접 디자인하여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공군 전투조종사로서 대를 이어 순직한父子조종사의 넋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아 이날의 행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였다.

보는 이와 행하는 이가 ‘교감’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진솔한 공유. 그 정점에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의 찬란한 위상이 자리해 있다. SEOUL AIRSHOW 2007은 그렇게 6일간의 여정 속에서 화려한 종지부를 찍었다. 스릴 넘치는 퍼포먼스로 그려낸 ‘강렬함과 화려함’. 그 이면에는 일취월장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AT**



1994년 12월 12일 8대의 A-37B로 팀이 창설된 이래 그간 265회의 곡예비행을 실시해오며, 공군의 위상을 한껏 높여온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 공군은 2009년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기종으로 교체하여 보다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김윤해

SEOUL AIRSHOW 2007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Aerostar 패션쇼 2007. 정복 및 예복, 조종복 등 20여 종의 다양한 공군 군복은 물론, 패션 디자이너 이기오 씨가 직접 디자인한 미래의 공군 제복 컨셉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전문 모델 외에, 우주인 후보 이진영 소령, 최초 여 전투조종사 박지원 대위, 블랙이글스 조종사, 공군 ACE 팀 등이 함께 무대에 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조류박사 현 준위의 Bird Alert 6

가창오리들이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구름인가? 벌떼인가? 가을하늘을 수놓는 천수만의 **가창오리**

드 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농부들이 풍작으로 기쁨
르 을 만끽하고 있는 천수만의 간월호에 올해도 어김없
이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 무리들이 찾
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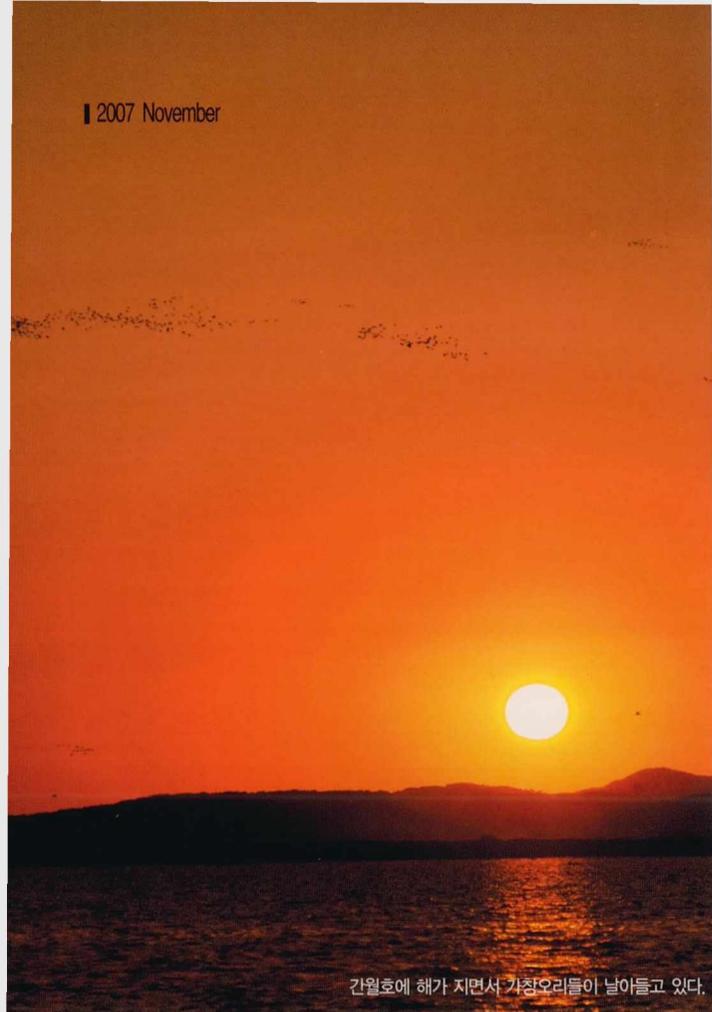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가창오리 무리는 천수만의 간월호
에 도착하면 간월호의 물 가운데 조성되어 있는 모래언덕에
서 지친 날개를 접고 휴식을 취한다. 또 다른 무리는 천적이
없는 호수 중간의 물위에서 물장구도 치며 장난을 통해 여행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가창오리들에게 이곳 천수만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 낮
에는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는 호수의 깊은 곳에서 마음껏 휴
식을 취할 수 있고 밤에는 넓은 들판의 많은 낙곡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넓은 눈에 떨어져있는 낙곡과 태풍
으로 쓰러져있는 벼들이 바로 그들의 양식인 것이다. 러시아

의 툰드라 지역에서 4,000여 km를 애써 날아온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이곳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 내내 먹을 많
은 양식이 넓은 벌판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늦가을의 간월호에 해가 질 무렵이면 가창오리 무리도
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무리가 몇 백 마리에서 몇 천 마
리 혹은 몇 만 마리가 되는 무리가 속속 도착한다. 일단 도착
한 가창오리는 점점 큰 무리를 만들면서 대규모의 무리로 발
전한다. 큰 무리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가창오리들은 틈만
있으면 무리의 가운데로 이동을 한다. 아마도 무리의 가운데
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창오리를 관찰하는 동안 매 한 마리가 가창오리를 공격
하는 것을 보았다.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사냥한 것
으로 보아 가창오리들이 아마 매들의 공격패턴을 미리 파악



간월호에 해가 지면서 가창오리들이 날아들고 있다.



일몰이 시작되자 가창오리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간월호에서 주변 농경지로 무리를 이루어 떠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으로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 속의 중심부에 섞여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섬세한 새들의 조심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창오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접근이 어려운 가창오리의 번식지

가창오리의 수컷은 머리 부분을 보면 쉽게 구분이 된다. 머리에 태극무늬가 있어서 옛사람들은 이 새를 보고 태극오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암컷은 수컷과 쉽게 구분이 된다. 마치 청둥오리의 암컷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리에 흰점이 하나 있기에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번식지에서는 이들이 습성상 모여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조류 학자들조차도 우리나라에서 가창오리들의 군무를 보여주면 조작된 영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니 어쩌면 이 새들의 화려한 군무를 가을이면 항상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리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에 속하는 이 새는 영어로는 Baikal Teal이라고 부른다. 즉,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 사는 작은 새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 새를 쉽게 볼 수 없다고 한다. 호수의 길이

가 4,000km로 길고 넓으며 수초가 많은 늪지가 형성되어 번식지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과 방송국에서 여러 번 취재를 다녀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가창오리의 생태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천수만을 찾아온 것이다.

겨울철새와 비행안전

가창오리가 이동을 시작한다. 물에서 30여 만 마리가 떠오르는 것을 본 사람이면 이들의 群舞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 많은 새들이 물을 박차고 오르면서 서로 부딪혀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마치 구름처럼, 또는 벌떼처럼 날아다니지만 일사분란하게 날아오르고 수만 마리가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울동하는 모습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있다. 구름처럼 움직이는 무리가 우리의 머리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 드리운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새들의 날개 소리만 들리지 않는다면...

지난 달부터 서산기지는 동계비행절차에 들어갔다. 겨울 새들이 도래하고 그 중에서도 가창오리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비행 시 안전을 위해서 새들의 활동이 적은 상공으로 전투기들의 비행경로와 비행고도를 일부 수정하여 비행한다. 오랜 시간 동안 겨울새들의 활동 경향성을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겨울철 비행절차를 수립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 지원요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워낙 많은 무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행여 이 새의 무리가 기지 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지 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활주로 통제탑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조류감시장비와 기지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장비를 활용하여 이 새들이 항공기 이착륙 경로로 접근하기 전부터 이착륙에 지장이 없어질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다.

적외선 조류감시장비의 모니터를 보는 병사의 눈이 커짐을 알 수 있다. 가창오리가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활주로 통제탑의 선임장교에게 전달되고 활주위에 이륙을 위해 정대 중인 조종사에게 즉시 전파된다. 새들이 활주로 상공을 벗어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모니터를 보는 병사의 눈에서는 긴장이 흐른다.

가창오리들이 활주로 상공을 벗어났다. 낮에는 새들을 감시하는 요원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감시 업무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야간이 되면 모니터를 보는 사람만이 활주로 주변 상공의 상황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판전을 피우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낮이나 밤이나 늘 우리 기지 상공을 살피고 조류가 접근치 않도록 퇴치와 감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운항관제대 BAT 요원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살아 있는 한 겨울철새로부터 우리 기지의 비행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가창오리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비료로 사용하던 벧짚을 지금은

모두 거두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거나 팔기 때문에 벧짚에 붙어있던 새들의 먹이가 되는 낱알이 함께 수거되고 최근에는 농가에서 일찍 논갈이를 하여 먹이가 땅속에 깊이 묻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눈이 내리고 얼마 남지 않은 먹이마저 눈속에 묻히면 더 이상 가창오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 다시 이동을 해야 한다. 그나마 이곳보다 먹이 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새들은 어디든지 떠날 것이다. 4,000여 km를 날아왔는데 그 어딘들 못 가겠는가. 좀 더 날씨가 쌀쌀해지면 보다 따뜻한 남쪽지방으로 날아갈 것이다. 아마 해남의 고천암호가 그들의 최종목적지가 될 것이다.

내년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새로운 봄날에 가창오리는 또다시 먼 여정을 떠날 것이다. 이곳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낸 가창오리들은 보다 강한 모습으로 고향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행은 매년 반복될 것이다. 새로운 번식을 위한 사랑을 위해... 오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군무를 펼쳐준 가창오리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아름다운 군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2. 가창오리들이 먹이를 찾아 논 위를 날고 있다.
3. 먹이 활동을 떠났던 가창오리 무리들이 아침이 되자 다시 간월호로 돌아오고 있다.
4. 먹이 활동을 떠나는 가창오리 무리



글쓴이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
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
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헌신한다.

GETTING SERE-IOUS

美공군인들의 극한 생존능력 육성

- 생존능력의 터득은 불가능과의 싸움에서 시작된다 -

원문 미 공군 (Aimen) Magazine
번역 중위 권준엽 |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손안에서 꿈틀거리는 실 벌레들을 내려다 봤다. 이것이 스티븐 레이텔 하사의 오늘 저녁 식사이다. 50마리도 넘는 벌레들을 입에 넣으며 그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 입 속에서 잇몸과 치아를 따라 벌레들이 꿈틀거린다. 우물우물 씹어서 단백질로 가득 찬 이것들을 꿀꺽 삼킨다. 끊임없이 입안에서 혀와 잇몸을 깨물어 대는 벌레들이 레이텔 하사는 마치 풍선껌인 양 볼이 팽룩하게 되도록 씹는다. 징그럽고 꿈틀대는 생명체란 생각은 머리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다만 생존, 대피, 저항, 탈출(SERE: 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 전문요원인 레이텔 하사가 불모지에 고립되었을 때 살아남으려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고, 또 이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의 임무이다. "SERE 전문요원은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주 페어차일드 공군기지(Fairchild AFB)의 336 훈련단의 RC 델라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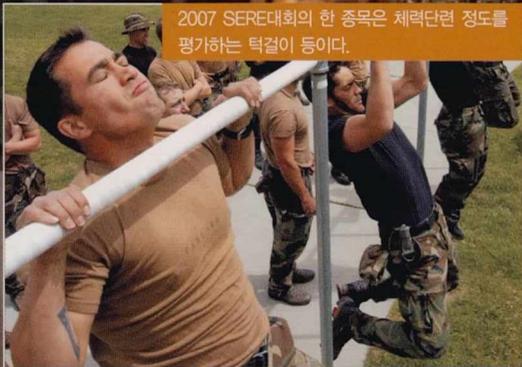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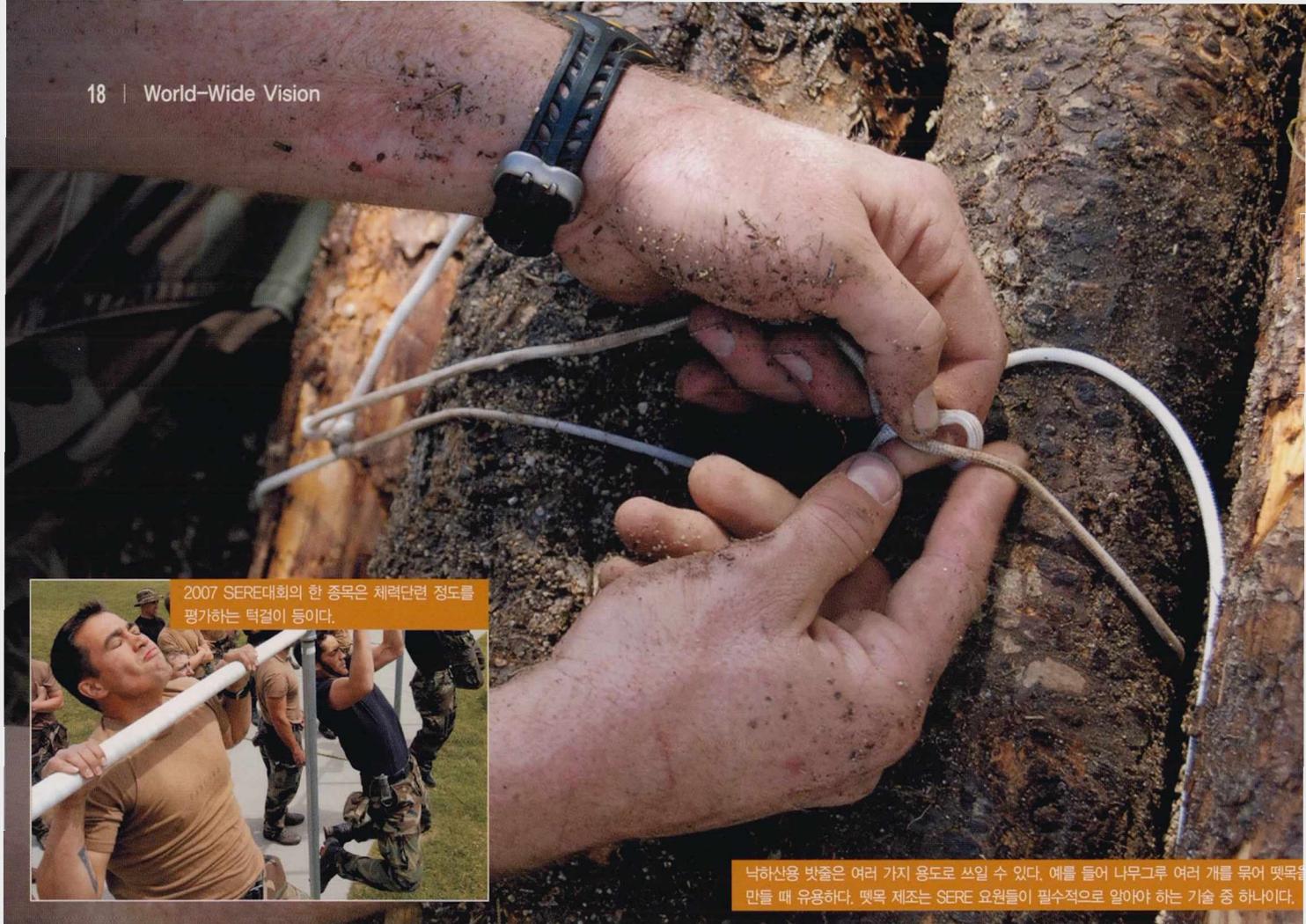
사는 설명한다. "몸이 튼튼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을 통해 신체는 얼마든지 발달시킬 수 있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신력의 강인함이지요. 남들이 하지 못하고 또 절대 하지 않을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력 말입니다."

이들 교관들은 공군의 특수훈련이 타군보다 월등하다고 말한다. SERE 훈련 자체도 한국전쟁 말기에 공군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 후에 베트남전 당시 육군과 해군에서도 본 훈련을 도입하게 되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ERE 교관이자 수중 생존전문가인 매튜 지머 하사는 말한다. "훈련생들은 어떠한 도전과 장애물도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공군전사들에게 어떠한 예측불허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들은 수상, 사막, 극한, 산악 등의 여러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한다.

공군전사들의 훈련과정

SERE 훈련은 전투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매튜 지머 하사가 군정을 신기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임시땀목을 끌고 워싱턴 주 콜빌 국립 공원의 차가운 호수를 건너고 있다. 그와 파트너 마이클 가르시아 하사는 2007 최고 SERE 요원 선발대회에서 15립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7 SERE대회의 한 종목은 체력단련 정도를 평가하는 턱걸이 등이다.

낙하산용 밧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그루 여러 개를 묶어 밧줄만들 때 유용하다. 밧줄 제조는 SERE 요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들 SERE 요원들은 이것에 관련되는 기술들을 오늘과 또 내일의 공군인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곳 페어차일드 기지에서는 매년 10,000명도 넘는 공군장병들이 훈련과정을 수료한다.

훈련과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본생존 및 대피, 저항 및 탈출, 그리고 수상 및 극한생존이다. 첫 번째 기본생존 및 대피과정은 미개지에서의 생존기술, 응급처방, 지상내비게이션, 위장, 적 회피, 그리고 연장제조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저항 및 탈출과정은 포획된 뒤 어떻게 적에게 저항하고 또 그에게서부터 탈출하는지에 대해 훈련한다. 실제로 포로경험이 있는 장병들의 기억과 진술을 토대로 짜여진 과정이다. 수상 생존과정에서 훈련생들은 수중응급처치법, 해양생태학, 수상 장비유지, 그리고 수중생존용품 사용법 등을 터득한다. 마지막 극한생존훈련에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는 기본생존 및 회피기술을 혹한에서도 응용할 수 있게 가르친다.

이 모두의 과정은 한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다. 살아남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전시환경에서 가장 부각되는 점 중 하나이다. SERE 훈련은 워낙 중요하게 여겨져서 심지어는 과정의 대부분이 군사비밀로 취급된다. “적이 생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생존하는 법을 우리 장병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텔라노 중사는 말한다.

훈련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관들 자신도 수시로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년에는 전투구조장교, 조난 구조사 및 SERE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총체적 관련분야 지식, 지구력 및 의지를 시험하는 4일간의 평가를 실시했다. “수호천사”라 불리는 이들 전문요원들은 장비가 아닌 인간으로 이루어진 무기체제로 여겨진다.

2007 최고 SERE 요원 선발대회를 위해 6월에는 15개의 2인조 팀들이 콜빌 국립공원 지역 내의 험한 산으로 향했다.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투쟁을 요구하는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뺨속까지 시리게 춥고 거머리가 바글거리는 물살을 수영하여 깎아지른 듯 가파른 암벽을 오른다. 굳은살과 물집으로 뒤덮인 발을 끌고 수십 킬로를 염소도 마다할 음식을 먹으며 걷는다. 그러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신조를 잊지 않는다. “명예롭게 귀환하라!”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훈련 초기에 받았던 특별내무교육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설 새 없이 계속 임무가 주어지니

까요.” 지머 하시는 말한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 무나 피곤합니다. 선두그룹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하고, 또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서 앞으로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지머 하사와 역시 수상생존전문가인 그의 파트너 마이클 가르시아 하사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결국 본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 년의 전문 교육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의 팀이나 대회를 끝내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두 팀은 통과지점의 시간 미달로 탈락되었고 세 팀은 극심한 물집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주에서 중도 탈락해야 했다.

브랜든 클라인 하사와 스티븐 레이텔 하사는 한때 우승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군의관이 코스 도중 클라인 하사의 발을 점검한 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불가관정을 내려 아쉽게 탈락했다. 그러나 평가관들은 레이텔 하사에게는 혼자서라도 계속할 수 있게 허락을 했다.

하지만 피곤, 고통과 싸우고 벌레로 끼니를 채우며 힘겹게 여기까지 온 레이텔 하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그의 눈빛에는 그만두는 이유가 나타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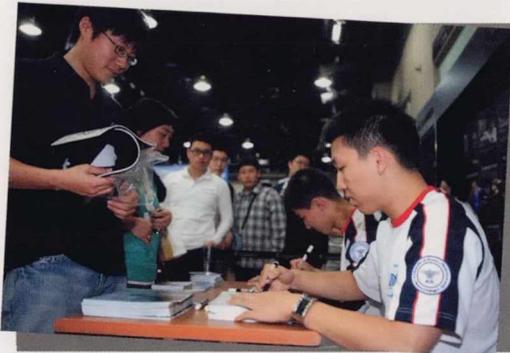
“동료를 두고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말한다. “파트너가 없이 결승점을 지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SERE 요원에게 명예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다. 오늘도 이들은 연마하고 생존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칼리스펠봉의 꼭대기에서의 훈련 중 게이린 만조니 병장이 팀 동료인 코디 스펙맨 병장을 업고 내려오고 있다. 이 산은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의 북쪽에 있는 콜빌 국립공원 지 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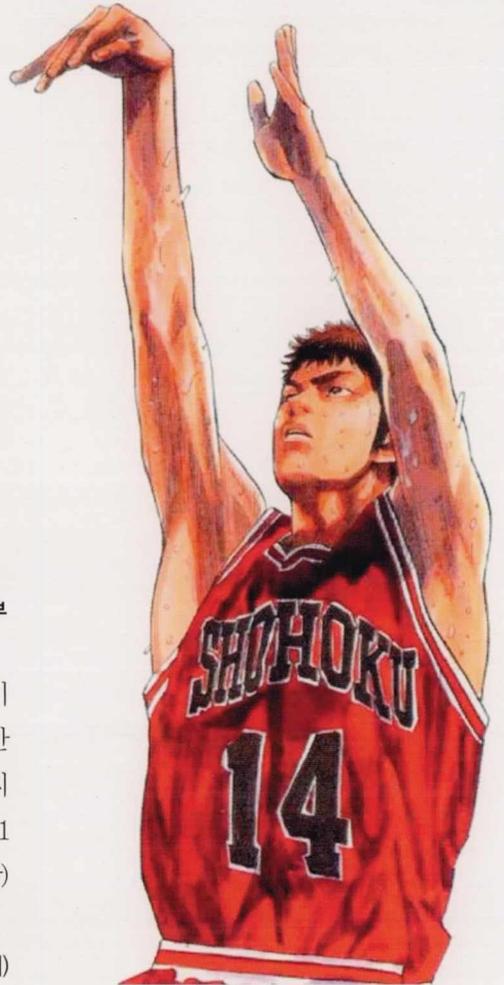


왼 손은 거들 뿐



강도경

글 중위 유선의 | 공군방공포병사령부
사진 중사 편보현



만 화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20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봤을 슬램덩크. “왼 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도 농구공을 손에 잡아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42권짜리 슬램덩크를 열 번 가까이 봤고, 결정적인 순간이나 감동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며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하면 몇몇은 나를 보고 ‘오타쿠’ 나 ‘막장폐인’ 이니 하며 놀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슬램덩크는 나에게 있어 최고의 만화책, 단순한 재미, 그 이상이다.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돼라.

슬램덩크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지만 후반기 시즌 4전 4패 (10월 9일 현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군ACE」에 대한 글을 쓰자니 자꾸만 키보드 위에서 손이 머뭇거리진다. 특히 저조한 승률을 보이고 있는 「공군ACE」의 팀플레이와 강도경 선수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개할 수 있을까. 지

우고 쓰기를 몇 번, 문득 슬램덩크의 이 구절이 떠올랐다. ‘전국최강’이라는 산왕공고와의 대결, 팀원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빅찬 상대인 상대편 센터와 1대1을 고집하는 채치수(주인공 팀의 주장)에게 옛 라이벌 변덕규가 한 말이다. 화려한 기술을 가진 신현철(상대편 센터)은 도미. 네게 화려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채치수.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돼라.

강도경은 프로리그에서 팀플레이 전담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 선수다. 한빛 스타즈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SKY 프로리그 2006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총 전적 41승 26패를 기록했고, 이는 당시 삼성전자 이창훈과 KTF 홍진호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이었다. 이 기록을 세우는 동안 강도경은 개인전에 세 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다.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팀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기가 돋보이는 것보다 팀이 승리하

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팀플레이를 처음으로 전담했다는 것. 화려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자미가 되어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것이 강도경이고, 그래서 그가 우리 기억 속에 ‘저그 대마왕’ 이자 ‘팀플 대마왕’으로 오래도록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싶다.

너희들은 강하다.

후반기 시즌 초반, 아직 「공군ACE」의 팀플레이가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선수들이 시즌 경기일정에 적응하게 되면 금새 그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전반기 성적을 분석해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강도경, 조형근, 김선기, 이재훈, 김환중 등이 골고루 활약한 팀플레이는 총 성적 10승 12패로 45%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4위 STX와 6위 CJ의 41%나 8위 SK텔레콤의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시즌 초반 김환중과 이재훈이 기초군사훈련 직후 적응기간 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군ACE」의 팀플레이는 이미 상위권의 성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6월 23일, 뱀파이어에서 온계임트 원종서/박명수 조합을 상대로 펼쳤던 강도경/김선기 조합의 경기다. 강도경은 초반부터 상대팀의 발업 저글링과 벌처에 계속해서 견제를 당했고, 뮤탈리스크를 통해 박명수의 본진 드론을 반 이상 잡아냈지만 자신도 본진에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박명수가 저글링으로 강도경을 견제하는 사이 김선기는 원종서의 골리앗에 큰 피해를 입었고, 김선기가 돕지 못하는 사이 강도경은 테란의 메카닉 병력에 본진이 밀리고 말았다. 결국 강도경과 상대팀 한 명이

아웃되고, 김선기와 원종서의 1:1 구도. 김선기는 아웃되기 직전까지 뮤탈리스크 2기로 원종서의 SCV를 끈질기게 줄여준 강도경의 희생에 힘입어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팀이 자리를 잡기 전 겪었던 수많은 패배의 기억을 뒤로 하고 거둔 값진 승리. 더욱이 팀원 하나의 활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한마음이 되어 거둔 힘겨운 승리였기에 그 감격이 더했다. 군사훈련과 부족한 연습량 때문에 개인적 기량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었던 「공군ACE」의 승리.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강했던 것이다.

나뿐인가?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후기리그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4패쯤 했다고 벌써 “이번 시즌도 꼴찌 말아 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안 선생님(슬램덩크 주인공 팀의 감독)이 말씀하시길,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 돼.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은 끝나는 거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직 네 게임밖에 해보지 않았고, 힘없이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두 경기는 에이스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한 것이고, 우리 팀엔 황제도 있고, 부장도 있고, 마우스 오브 조로도 있고, 또 팀의 고참으로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팀플 대마왕’으로 부활할 강도경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선생님은 강팀과의 시합에서 3쿼터를 마치고 큰 점수 차이로 뒤지고 있어 좌절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뿐인가?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팀이 충분히 강하

더라도, 그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공군ACE」는 바로 공군 그 자체, 「공군ACE」의 11번째 멤버인 공군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강함’을 믿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굳은 믿음과 열띤 응원이 필요한 것이다.

왼 손은 거들 뿐

“직접 경기에 나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째서 「공군ACE」의 11번째 멤버라는 말이나?”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우리는 왼손이라고. 농구공을 쏘아 올리는(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은 오른손(선수들)이지만, 선수들이 정확하고 힘차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묵묵히 거들어 주는 왼손(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왼 손은 비록 오른 손을 거들 뿐이지만, 왼 손이 없으면 농구공은 터무니없이 골대를 벗어날 것이라고.

위대한 왼 손은 「공군ACE」 안에도 있다. 한 때 시대를 풍미했던 ‘저그 대마왕’이 진흙투성이 ‘팀플 대마왕’이 되어 팀을 승리로 이끌고, 팀의 고참으로 후임들을 챙기는 모습 역시 왼 손의 그것이다. 강도경은 각종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휩쓸던 2002년에 비해 화려함은 줄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뛰어난 왼 손이 되어 승리를 위해 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오른 손이 조만간 ‘클린 샷’을 쏘아올릴 그날을 위해 우리 왼 손들은 묵묵히 거들어주자. 그리고 팀 내 진흙투성이 왼 손, 강도경에게 희망을 걸어보자. ㉠

고주원, 한효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서울에어쇼 2007에서 공군을 알리는 새로운 두 얼굴이 탄생했다. 지난 10월 21일 낮 12시, 텔런트 고주원(26)과 한효주(21)가 서울에어쇼 2007 행사장에서 공군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임명됨으로써, 공군은 이제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본격적인 군 홍보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원고정리 편집실 | 사진 김윤해



현장스케치

'서울에어쇼 2007' 행사가 열린 10월 2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비행관람대 단상.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행사장에서 난데없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날 공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나타난 텔런트 고주원과 한효주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번 에어쇼에서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내 유일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유니폼 차림으로 등장하였다.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촉패와 함께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받았다. 위촉식이 끝난뒤 두 사람은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15K와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특히 T-50의 경우 직접 탑승해 조종석 안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bout 주원

"하늘을 주름잡는 공군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재 SBS '왕과 나'에서 주인공으로 열연 중인 고주원. 그는 MBC '이산'과 월화드라마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이 작품에서 성종 임금 역을 맡아 '이산'의 정조역 이서진과 카리스마 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KBS 주말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선 미칠(최정원)의 남편으로 나와 인방극장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소유한 부드럽고 이지적이면서도 건강하고 남성다운 이미지가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공군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는 평이다. "많은 남자들처럼 나도 어

렸을 적 조종사를 꿈꾸었다"는 그는 "이렇게 공군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고, 앞으로 공군 행사에 많이 참석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홍보 업무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의욕을 드러냈다.

About 효주

“솔직히 제가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믿겠어요!”



한효주는 최근, 공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대사로 적합한 연예인’이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무엇보다도 만화 속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순수한 이미지 덕분에 공군 장병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평이 우세하다. 평소 그녀는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로 섬세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얼마 전 종영한 KBS 일일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착하고 예쁜 여자 석지수로 등장하여 스타는 물론 ‘군인들의 로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실제로 홍보대사 위촉식 당일, 한효주에게 보내는 장병들의 환호성은 열광 그 자체였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예비역 공군 소령인 공군가족의 일원인 덕택에 그녀의 공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남다르다. “어릴 때 공군부대 관사에서 살며 공군과 친숙해졌다”는 그녀는 “내가 아는 멋진 공군의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공군 홍보에 대한 전의(?)를 불태웠다.

앞으로의 역할 기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고주원과 한효주는 공군 및 항공우주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각종 공군 홍보영상물에 출연해 공군의 역할과 항공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일반인들과의 친숙한 교감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공군의 대표 마스코트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진정한 군 홍보대사로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At**



Hot SKETCH

참모총장 스케치

공군참모총장, 세계 공군참모총장회의 주관

- 비행교육체계 발전 방향 주제 발표 -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15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세계 공군참모총장 회의를 주관하였다. '비행교육체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는 한국, 독일,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 총장이 참여하여 고효율, 저비용을 추구하는 현대 공군의 추세 속에 바람직한 비행교육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발표는 KT-1과 T-50을 활용한 비행교육체계를 소개한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 태국 등 3개국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16일부터 김 총장은 來韓한 노르웨이 공군참모총장, 싱가포르 공군참모총장, 영국 공군작전사령관 등 외국 대표단을 차례로 접견하며 군사교류 활성화 등 국가간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했다.



◎ 서울에어쇼 2007 참석, 블랙이글스 고별비행 지휘

참모총장은 10월 16일, 서울에어쇼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 항공우주 및 방산업체 관계자, 초청 외국군 귀빈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17일에는 에어쇼 전시관을 방문, 보잉, 록히드마틴, GE, 시콜스키, 삼성 탈레스 등의 업체를 방문하여 에어쇼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업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격려와 함께 향후 행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10월 21일에는, 「서울에어쇼 2007」 행사를 마지막으로 퇴역하는 블랙이글스 A-37B에 직접 탑승하여 고별비행을 지휘하고 그간 국위선양과 공군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특수비행팀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 자원봉사 대축제

10월 13일, 참모총장은 전 공군이 주둔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벌이는 '공군 자원봉사 대축제'를 맞아 공군본부 장병들과 함께 국립헌원원에서 호국영령들의 묘비를 손질하고 주변정리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 「Rainbow Day 선포식」 주관

참모총장은 10월 2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64일간 추진한 Rainbow Project의 성과를 평가하고 Rainbow Project의 종료를 선언하는 「Rainbow Day 선포식」을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는 Rainbow Project 추진 경과보고, Rainbow Project 관련 영상 시청, Rainbow Project 수칙 헌정, 타임캡슐 봉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모총장은 격려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충분한 힘과 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밝은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자"는 뜻을 전하고, 이어지는 Soaring Eagle Project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IR FORCE NEWS



핵심가치 선포 1주년 기념식 개최

- 선포 1주년 맞아 핵심가치 확산 및 행동화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
- 핵심가치 '상징 인물 및 단체' 초대를 통한 공감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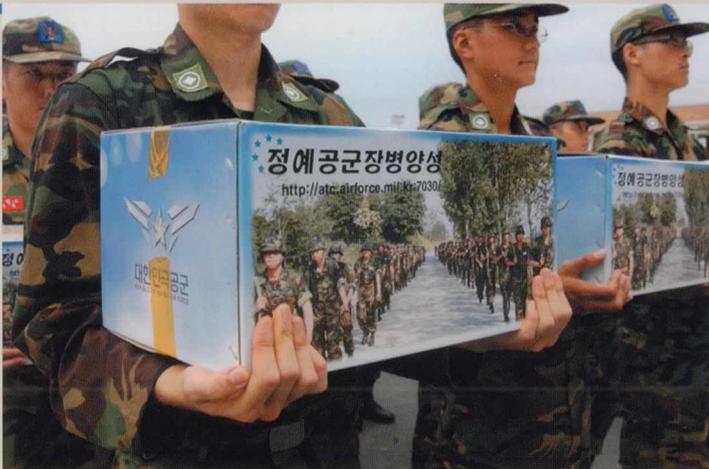
10월 9일, 공군본부 대강당에서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가치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등 4대 핵심가치의 확산 및 행동화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공군 조직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사고, 행동의 기준 및 원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핵심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사례 발표, 핵심가치 추진 경과보고 등 지난해 선포식 이후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신분별 대표자의 4대 핵심가치 구호 제창을 통해 전 공군인의 가슴속에 행동화 의지를 다짐했다.

참모총장은 핵심가치를 대표하는 인물 및 단체의 대표를 초청하여 직접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특히, <헌신>의 인물에는 공중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순직한 **故박명렬 소령·故박인철 대위**의父子조종사가 선정되었고, **故박인철 대위**의 모친이 자리를 함께해 많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

공군은 중장기적으로 핵심가치를 교리·규정, 각급 부대 교육 및 인사제도에 반영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내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7 November



◎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택배상자 개선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훈련 장병들의 개인피복 및 소지품을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장정소포 발송용 택배상자를 개선·발전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장정소포 발송용 택배상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일반적인 황색 골판지 박스였으나, 개선된 박스는 겉면에 공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인쇄·제작함으로써 조국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 제3훈련비행단, 오일펜스 설치훈련 실시

친환경적 부대건설에 적극 동참해 온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4일 보급대대 주관으로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일펜스 설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1시 가상 유류유출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오일펜스 설치요원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여 20여 분 만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3훈비 단장은 "우리 부대는 특성상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어 기름유출 시 큰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훈련을 토대로 미비점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사고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합참대 학생장교, 남부전투사령부 방문

10월 22일 합동참모대학 학생장교 126명이 남부전투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육·해·공 3군 상호간의 역할과 능력을 이해하고 더욱 완벽한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아울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학생장교들은 부대현황 브리핑 후 제11전투비행단의 항공기 및 특수무기를 견학하였다.



◎ 남부전투사령부, '병사 1인 1강의' 제도 신설

남부전투사령부에서는 10월 17일, 병사들이 자신의 취미, 특기, 전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안 준비에서 강의까지 직접 참고 및 부사관을 포함한 전 장병에게 발표하는 '제1회 병사 1인 1강의'를 실시하였다. '병사 1인 1강의' 제도는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내병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인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설하게 된 것이다.

AIR FORCE NEWS



◎ 제1전투비행단, 전국체전 기수단 지원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을 맞아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320명의 장병들이 기수단을 지원하여 전국체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지난 8월, 기수단 모집에 열띤 관심을 보인 1전비 장병들은 높은 경쟁률을 거쳐 320명의 정예 장병이 선발되었고 지난 9월 초부터 바쁜 영공방위 임무 속에서도 틈틈이 연습행사를 가졌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유엔모지 참배

10월 24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단장을 비롯한 장병 50여 명이 유엔모지 참배를 다녀왔다. 이날 5전비 장병들은 묘 하나하나에 헌화를 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유엔군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6.25 당시 전투에 출격한 조종사 출신 공사 1기생들이 단체로 유엔모지 참배에 나섰다. 이들은 제5전술공수비행단 측이 특별히 준비한 공군 수송기편으로 오전에 부산에 도착, 비행단 소개와 현황 보고를 받고 유엔모지를 찾았다.



◎ 제15호성비행단, '영내병사 의식변화 결의대회' 개최

10월 23일, 제15호성비행단 기지강당에서 전 영내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내병사 의식변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내병사 결의대회'는 병사들 스스로 의식변화를 통해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병영내 약폐습을 근절함으로써 명량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 1,000만km 무사고 차량 운행기록 수립

10월 9일,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가 1,000만km 무사고 차량운행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수송대대 윤기원 하사가 초등학생 등교버스 운행을 무사히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이날 대기록이 달성되었으며, 기록수립 직후에는 16전비 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 및 수송대대 전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km 무사고 차량운행기록 달성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안전 운행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07 November



◎ 제18전투비행단, 호국영령추모행사 거행

10월 12일, 제18전투비행단은 공군참전유공자, 역대참모총장,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포대 소재 공군전적비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당시 한국공군의 주력을 이루며 조국수호에 일익을 담당했던 F-5(무스탕) 전투기를 이용한 한국공군 단독출격작전을 기념하고 조종사들의 전적을 추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제19전투비행단, '07대량탄약 지속조립훈련 실시

제19전투비행단 무장탄약정비대대는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Pre-ITO 전 탄중에 대한 대량탄약 지속조립훈련을 실시하였다. 75명의 타기지 지원요원을 포함한 총 154명의 탄약정비사들은 전시 탄약지원능력을 검증하고 절차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24시간 주야 교대근무를 실시하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제20전투비행단, 오케스트라 위문공연

10월 19일 저녁, 제20전투비행단 기지강당에서 오케스트라 위문공연이 있었다. 아산시 교향악단과 Sop. 박선영, Ten. 오창석 씨 등이 참여한 본 공연에서 공연자들은 장병 및 관사가족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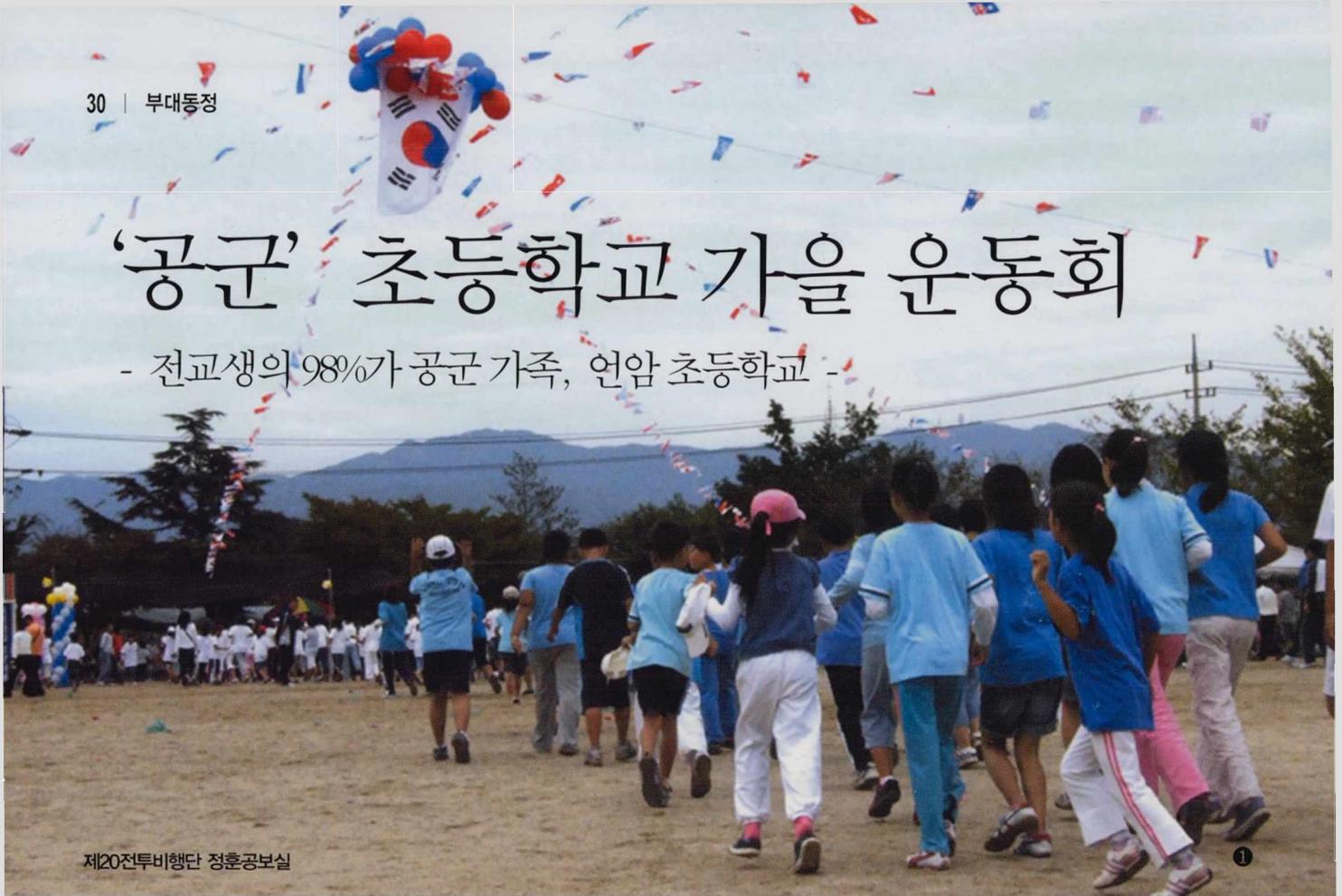


◎ 제1방공포병여단 511포대, 지역주민 행사 지원

제1방공포병여단 예하 511포대가 10월 21일 부산 해운대구민의 지역 행사인 '장산제'를 지원하며 앞으로 주민들과 더욱 활발한 교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대에서는 행사장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행사 일주일 전부터 자연 정화활동과 진입로 보수공사에 힘쓰는 등 참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보안 준수 안내문을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곳곳에 통제요원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각종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 덕에 제9회 '장산제'는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 전교생의 98%가 공군 가족, 연암 초등학교 -



제20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파란 가을하늘에 펄럭이는 만국기~ 청군 백군 색색가지 옷을 입고 모인 학생들 사이로 비행단 이름이 새겨진 천막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여기는 바로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전교생의 98%가 공군 가족인 작은 학교가 있다. 제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연암 초등학교’는 그래서 ‘공군 초등학교’라 불린다. 공군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열린 9월 29일, 공군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어제는 대대장님, 오늘은 ○○아빠, 저마다 계급과 직책을 잊고 한 가족의 모습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



2



3

1. 만국기가 펄럭이는 연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전 체조 모습
2. 학생들의 공연도 운동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3. 내가 1등! 손등에 찍힌 등수를 뽐내는 아이
4. 운동회의 백미는 달리기 게임! 엄마도 아들도 최선을 다해 달린다.
5. 학생들의 모자 뺏기 게임



4



5

11월의 공군 역사

자료장리 군역사기록관리단

- 11월 3일 ●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1968)
- 11월 10일 ● C-47 수송기 도입(1950)
- 11월 27일 ● U-10B 항공기 도입(1969) → 1972년 8월 24일 퇴역
- 11월 28일 ●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웅비” 명명식(1995)
- 11월 30일 ● F-15K 최초도입(2005)



우리 공군의 UH-1 헬기로 작전지역에 투입된 육군병력과 작전지역 이동을 위해 C-46 수송기에 탑승하는 육군장병들의 모습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작전 참가(1968. 11. 3.) 1968

1968년 1월 21일 이른바 1·21 사태를 도발한 북한은 1968년 10월 30일 울진·삼척지구에 124군 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켰다. 태백작전으로 명명한 소탕작전에서 우리 공군은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접항공작전, 병력(3,975명) 및 화물공수(50,920LBS), 조명탄 투하 등 559소대의 항공작전을 실시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공군의 UH-1 헬기들은 특전사 요원들을 태우고 기동성있게 공중강습을 실시해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응집력을 와해시켜 조직적인 저항을 분쇄함으로써 소탕작전의 성공적인 완수를 가능케 한 핵심주역이 되었다. 이날 우리 공군의 활약상은 생포된 무장공비의 다 음과 같은 증언에서 생생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남한이 얼추 빨개져 너희들이 내려가지만 하면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공중으로부터 불벼락을 받아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국내개발 기본훈련기(KT-1) “웅비” 명명식(1995. 11. 28.)

1995

국내기술로 10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1991년 12월 12일 초도비행에 성공한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명명식이 1995년 11월 28일 제15훈련비행단 주기장(서울기지)에서 거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KT-1 명명식에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라”는 의미로 “웅비(雄飛)”라 이름하고 친필휘호를 하사하였다.

이 명명식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하나 있다. 당시 우리 공군의 52시험평 가전대는 명명식을 사흘 앞둔 토요일, 01, 02, 03호기 3대로 시범비행 준비를 위해 막바 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Cuban-8(8자 기동) 중이던 01호기가 배면에 접어 든 순간 사출좌석의 안전편이 빠지면서 전방석 조종사가 비상사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진 후방석 조종사도 이슬이슬하게 비상사출한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은 구했지만 명명식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KT-1 사업은 자칫 그간의 힘든 여정을 허무하게 마쳐야 할지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체결함이 아닌 사출좌석 제작사의 원결함 으로 밝혀져 현재는 우리 공군의 정예 조종사 양성의 산파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터키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항공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AF**



KT-1 기본훈련기에 대한 웅비 명명식이 1995년 11월 28일 제15훈련비행단에서 거행되었다.

USAF, ROKAF join forces in the sandbox



한국어 학당 수업

✎ 하사¹⁾ 필립 버터필드 | 미 386원정단 공보실

본 내용은 다이만 부대와 함께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386원정단 공보실 작가로 있는 필립 버터필드 하사가 한미 공군 장병들의 상호 교류활동을 취재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민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는 모두 다른 배를 타고 왔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게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다국적군 일원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이곳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까지 제58항공수송단을 파병하였다.

美공군과 한국공군은 이곳 “The ROCK”²⁾에 전개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서로 협력하며 많은 분야에서 경험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은 물론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곳에 주둔해 있는 미공군 제386원정비행단 공병대대 소속 제이크 렉 대위는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386원정단과 한국공군 간의 협력은 이 기지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과거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으며, 더불어 한미간 우호를 돈독히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최근 다이만 부대에 우수분리기 설치와 발전기 설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업무 파트너들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1) Staff Sergeant(E-5)로 편이상 하사로 칭함.

2) 알리 알 살렘 기지 내 미군 지역 건설 당시 거대한 바위를 발견한 것에서 유래된 애칭

되었는데, 앞으로 올 후임자들과도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렉 대위는 “우리의 친구인 한국군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거나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면, 우리 386원정단 공병대대 장병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라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아니다. 업무 이외에 양국 공군 장병들은 각각의 부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모든 동맹군 파트너들의 참여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기지 체육관에서 열리는 체육 강좌 등에서 많은 한국공군 장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미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공병대대 부대장인 달리스 콜맨 대위는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

일주일에 세 번 열리는 매력적인 태권도 수업은 이곳에 있는 미 공군 장병들에게 큰 즐거움이자 훌륭한 체력단련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태권도 수업은 한국공군 장병 중 유단자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에 의해 진행되며, 무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태권도 강좌에서 만난 유지보수 분석가인 로날드 코니 병장은 “이곳 태권도 수업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한국인 유단자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뛰어난 교관들이나 우리를 반갑게 대하는 그들의 모습 모두가 우리에게 멋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 강좌가 한국 장병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함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한국공군은 전통무예인 태권도뿐만 아니라 기지 내에서 한국어 학당을 개설하여 미 공군 장병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한글 쓰기와 읽기는 물론 회화 수업도 병행해서 진행한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국어 학당 수강생 찰스 웨스트게이트 대령은 “한국어 학당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권도 강좌

정말 많은 면에서 서로 닮았습니다.”

한편, 미 공군 장병들이 한국공군 장병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기도 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에드나 히가 소령은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는 중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한국공군과의 우호를 증진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다른 관계들처럼,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공군 장병들은 각종 지원임무와 태권도 강좌에서의 멋진 발차기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태권도 강좌를 수강하면서 동시에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리차드 로사도 병장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 모두 적극 추천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장병들에게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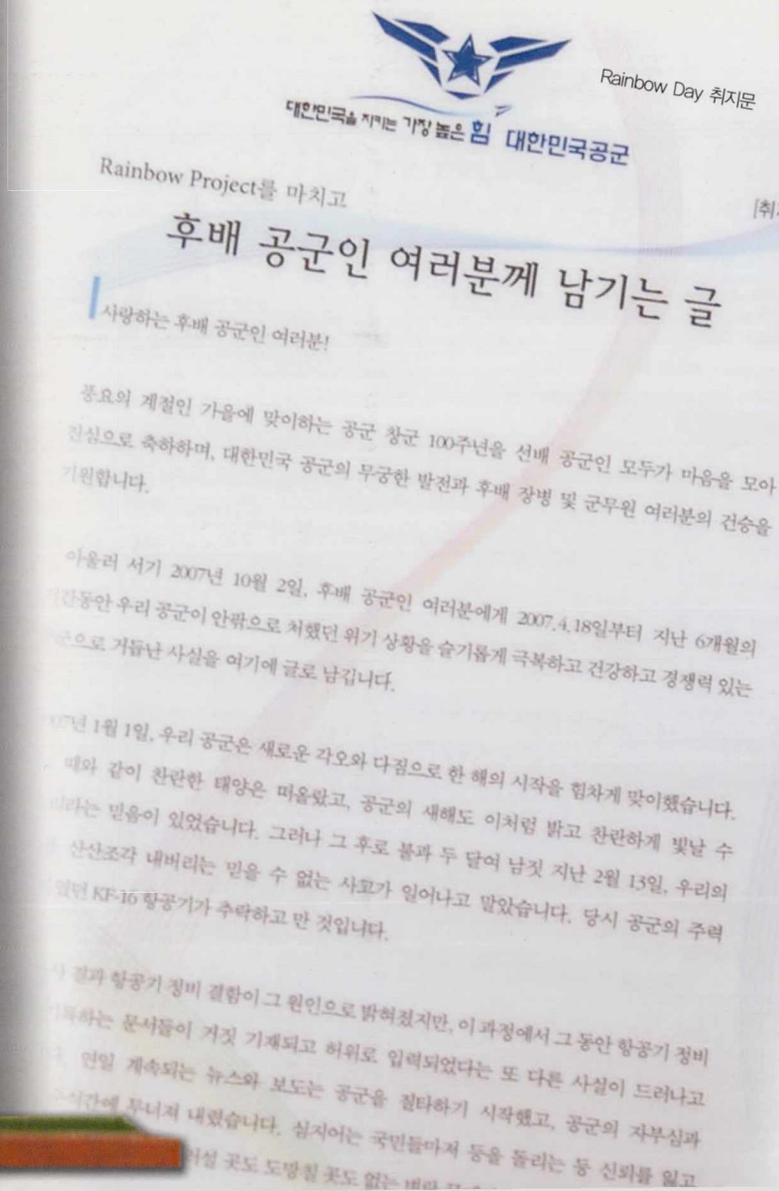
영어회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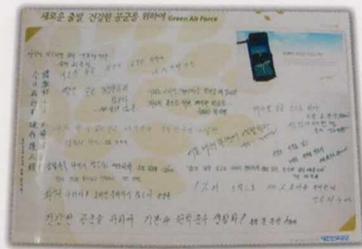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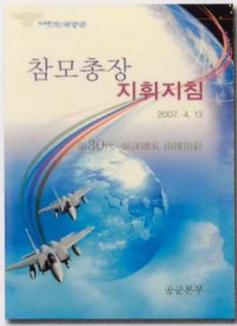
타임캡슐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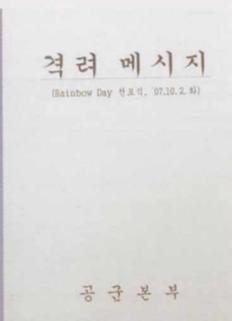
지난 10월 2일 거행되었던 “Rainbow Day” 선포식은 우리 공군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비상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던 “타임캡슐 봉인식”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희망’과 ‘비전’을 담으려는 시도였다. 타임캡슐의 개봉일은 공군창군 100주년이 되는 2049년 10월 1일. 이날의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42년 후 선진공군으로 도약하는 후배들의 든든한 밑거름이자, 진정한 공군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봉인된 타임캡슐 아이템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¹⁾

원고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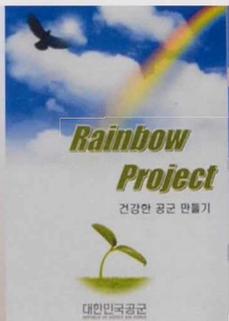


- ① 참모총장 지휘지침 :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핵심개념을 담은 참모총장님의 구체적인 지휘지침을 담았다.
- ② 그린 리본 : '제대로 하는 건강한 공군'이라는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 철저한 '자기반성'의 각오를 담아 장병들이 직접 착용하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다.
- ③ 그린 서명판 :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철폐하고 한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제작하였다.
- ④ 캠페인 수치 : 내부 혁신을 위해 추진되었던 일곱빛깔의 캠페인을 상징한다. 본 수치는 내실있는 혁신추진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각 캠페인 담당부서장들에게 수여되었고, 강한 공군으로 거듭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참모총장께 다시 헌정되었다.
- ⑤ 슬로건 포스터 : "가슴속에 Green, 깨끗하고 강한 공군" 등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4대 슬로건의 내용을 담았다.
- ⑥ CD 및 외장하드 : 항공기 사고 보도영상, 신문기사, 프로젝트 기획서, 종합보고서, 에세이 등 프로젝트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와 Rainbow Day 선포식 행사 DVD를 한곳에 정리, 저장하였다.



구분	직책	성명	직책
O 책임	참모총장	김영환	2007
	참모차장	김영환	200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O 주관	1. 참모부장	김영환	2007
	2. 참모부장	김영환	2007
	3. 참모부장	김영환	2007
	4. 참모부장	김영환	2007
	5. 참모부장	김영환	2007
	6. 참모부장	김영환	2007
	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8. 참모부장	김영환	2007
	9.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0.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1.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2. 참모부장	김영환	2007

구분	직책	성명	직책
O 책임	참모총장	김영환	2007
	참모차장	김영환	200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O 주관	1. 참모부장	김영환	2007
	2. 참모부장	김영환	2007
	3. 참모부장	김영환	2007
	4. 참모부장	김영환	2007
	5. 참모부장	김영환	2007
	6. 참모부장	김영환	2007
	7. 참모부장	김영환	2007
	8. 참모부장	김영환	2007
	9.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0.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1. 참모부장	김영환	2007
	12. 참모부장	김영환	2007



좌로부터 Rainbow Day 선포식 행사 DVD, 참모총장 격려 메시지, 타임캡슐 봉인서 다집서, Rainbow Project 수행당시 주요 직위자 명단, 레인보우 프로젝트 캠페인 이미지 등 타이캐슬 1호에 들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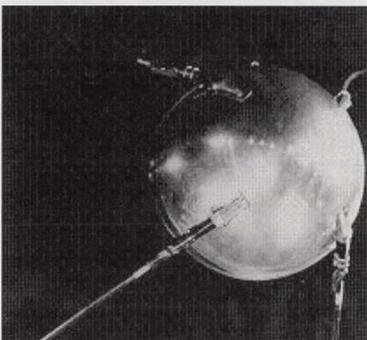
공군 - 과학기술부가 함께 열어가는 우주시대

지난 9월 20일, 공군본부 우주발전과장 최재동 대령(진)은 국가우주개발 계획과 연계한 군 우주력 건설을 위한 협력차원에서 김창우 과학기술부 우주기술심의관 및 우주개발정책과 담당자들을 접견했다. 국가우주개발 주무기관인 과학기술부(기초연구국)와의 상호교류가 공군 우주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기사는 당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원고정리 편집실

항공 우주군 시대의 도래

지난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가 지구 저궤도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도래한 이래, 인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하늘’이라는 역사의 무대위에 한껏 펼쳐왔다. 지난 냉전체제 초창기에, 미소 두 강대국은 상대국의 군사적 위치를 정찰하기 위해 수많은 정찰위성을 운용하였다. 이 기간 중 구소련은



약 1,000여 기의 코스모스 위성을 정찰용으로써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섬세함과 치밀함은 더해갔으며, 최근 발발했던 이라크전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미국 승리 원인의 80%가 이라크 전역을 속속들이 감시했던 정찰위성 운영 등 우주전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미래전의 양상은 전장의 영역이 우주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는 곧 우주의 통제가 전쟁의 승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공우주군”의 역할은 날로 그 비중을 더해갈 것이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효율적 시스템 운영 및 전략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기부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시스템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이라는 공군비전에서 볼 수 있듯, 하늘과 우주공간은 공군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와

풍부한 지원, 구체적 전략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군 독자적인 우주자산 구축에는 예산, 전력화 시기 등 한계가 있기에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는 국내 우주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기부 및 정부산하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은 향후 군 우주력 증강 및 국가우주자산 활용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국가우주개발과 연계한 우주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를 피하고 불필요한 예산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과 군의 국방기술개발사업은 국가주도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최첨단 기술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기술의 파급효과가 일반 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점이 많다. 이러한 제반의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공군이 과기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우주개발사업을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정부추진계획 및 현황

우주개발진흥법에 관하여

2005년 5월 국가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법률 7538호)」을 제정, 향후보다 안정적인 우주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과기부는 최근 직제를 개편하여 기초연구국 산하에 우주분야를 총괄하는 우주기술심의관직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주개발정책과’를 신설하여 우주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 「우주개발진흥

법」에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워크숍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함에 따라 향후 2016년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된다. 현재 우주개발 사업은 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기반 확충, 우주 분야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 수행 중에 있다.

우주개발계획과 투자예산규모

우주개발 단위사업은 추진시 사전 기획사업을 통해 투자 효과 등을 검토하고, 단위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가 우리별 1, 2호 발사 및 과학관측로켓 발사 등의 우주개발 착수 단계였다면, 다목적 실용위성과 과학기술위성의 운용, 액체추진과학로켓 발사 및 2008년 발사에 예정인 소형위성발사체를 개발하는 현재는 위성개발 능력과 부분적 로켓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나는 도약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우주개발계획은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외선(IR), 고해상도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과 고출력 액체추진 로켓기술 확보 등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향후 우주개발 투자예산은 계획기간(2007~2016)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에 총 3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주기술개발 추이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발전과장 최재동 대령(진)과 김창우 과기부 우주기술심의관



공군의 역할강화

국가우주개발과 연계한 공군 우주전력구축

공군은 지난 9월 1일, 공군본부 내 우주관련 기획 및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우주발전과를 신설하였다. 그간 항공무기체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우주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공군이 우주특기 신설 및 우주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박차를 가해 다가오는 우주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의지를 보여준 것과 동시에, 향후 군 우주력 증강의 키를 잡으려는 공군의 적극적 자세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군의 우주력 건설계획을 국가 계획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우선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계한 우주력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통하여 군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 구축되어 있는 국가우주자산을 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유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군 협력을 통한 국가우주자산을 공동 연구개발 및 구축하여 제한적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구축된 우주전력체계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군 독자 우주전력체계를 소 요반영하여 전력화하고, 국가우주자산을 종합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 우주센터 활용

우주개발계획의 분야는 크게 위성체, 발사체 및 우주센터, 기초연구개발 및 위성활용 등의 3가지로 나뉜다. 특히 나로 우주센터의

경우 로켓 및 위성의 발사, 위치추적, 자료 송수신, 기상관측 등에 필요한 장비 외에 우주교육홍보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로켓의 발사, 운용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군의 조종사, 엔지니어 등 현장체험, 장비, 기술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과기부 우주개발정책과 담당자는 “우주홍보교육관의 경우 향후 우주센터 견학, 전문가 강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므로, 항공우주관련 전시물의 설치, 강연운영 등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며, “나아가 공군, 항공우주(연), 우주센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우주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등과 연계를 통하여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나로 우주센터 외에도 과기부와 공군이 공동으로 우주개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공군은 지난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우주센터의 추적레이더 성능점검’ 등의 다양한 협조를 이룸으로써 크나큰 성과를 냈다. 이러한 정부와 공군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유인 우주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과학 실험 등 국가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주개발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주고 국가의 국제적 지위 및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략적 사업이다. 우리 공군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선진 공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㉔

9월 20일, 과기부 우주개발정책과 담당자들과 공군본부 우주발전과 담당자들이 만나 상호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인쇄 및 시청각 미디어의 중심 공군교재창 창설 50주년

SINCE 1957

활자, 편집, 인쇄, 필름, 녹음, 사진촬영, 책, 신문, 잡지,
CD타이틀, 프라모델, 플래카드, 출판물, 영상물, 조형물...

지식 및 정보전달의 메카로
인쇄 및 시청각 미디어의 '명품화'를 추구하는
공군교재창이 창설 50주년을 맞이합니다.

- 학술세미나 개최 : 2007. 11. 13.(화)
청주 공군사관학교 하늘관
- 기념식 및 초청행사 : 2007. 11. 15.(목)
교재창 행사장



50TH ANNIVERSARY

내가 만난 스타와 명언

내가 만난 스타와 명언

에로틱 영화의 거장 잘만 킹

〈투 문 정션 Two Moon Junction〉을 만든 잘만 킹은 할리우드의 에로틱 영화계에서 굵은 획을 그은 감독이지요. 〈나인 하프 위크 Nine 1/2 Weeks〉의 각본을 쓰고, 제작자로도 참여했으며, TV 및 비디오용 영화인 〈레드 슈 다이어리 Red Shoe Diary〉 시리즈를 감독하기도 했지요. 그가 작품 홍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저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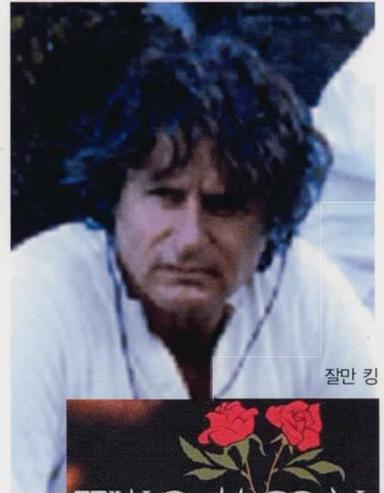
“감독님은 에로티시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로틱 영화의 대가인 만큼 그의 대답이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제 질문을 받은 그는 저와 회견장의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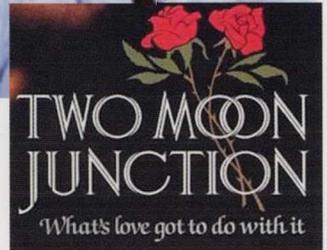
“제 아내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도리어 뜻밖의 질문을 받은 저나 기자들은 ‘섹시 Sexy, 고지어스 Gorgeous, 에로틱 Erotic’ 등의 수식어로 감독의 질문에 화답하였습니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 감독은 에로티시즘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는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Fried Green Tomatoes〉의 주인공인 캐시 베이츠처럼 통통한 여자인데요, 아내는 머리가 놀랍도록 좋습니다. ‘섹시’나 ‘에로틱’ 한 외모와는 거리가 있지요. 하지만 제 아내가 번쩍거리는 생각을 내놓을 때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강한 에로티시즘을 느낍니다.”



잘만 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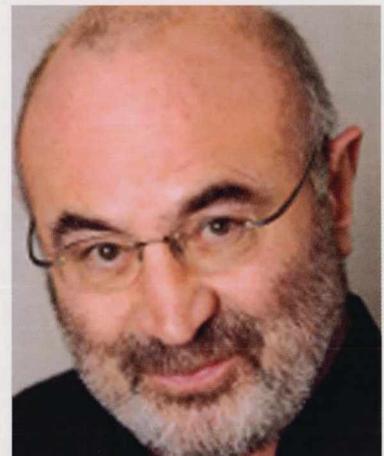


내가 만난 스타와 명언

단신의 연기파 배우 밥 호스킨스

할리우드에서도 활약하는 영국 출신 배우들 중 데니 드비토 만큼이나 키가 작은 배우가 있지요. 〈슈퍼마리오 Super Mario Bros.〉의 밥 호스킨스 Bob Hoskins입니다. 브라이언 드 팔머 감독이 〈언터처블 The Untouchables〉의 주연배우를 캐스팅 할 무렵, 로버트 드니로가 알 카포네 배역을 안 맞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웨이팅리스트 1번으로 밥 호스킨스를 꼽았을 만큼 그의 연기력은 할리우드에서도 정평이 나있지요. 닐 조단 감독의 〈모나리자 Mona Lisa〉로 1986년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Who Framed Roger Rabbit〉의 명연기로 미국 관객을 사로잡기도 했지요.

그가 〈슈퍼마리오〉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영화 속 공룡들과 모 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 진행자는 밥 호스킨스의 이름과 앤써니 홉킨스의 성이 헛갈렸는지 시종일관 그를 밥 호스킨스라고 소개하여 저를 진땀나게 한 적이 있지요. 다른 한 유명 진행자는 첫 대면 때 밥 호스킨스를 잘 안다며 배우에게 호들



밥 호스킨스

갑을 떨었는데요, 밥 호스킨스가 어떤 영화가 제일 좋았느냐고 문자 대답은 않고 판청만 피우다가 자리를 피해버려서 제가 또 진땀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제법 친해졌을 무렵, 저는 걸레인 줄 알면서도 사석에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불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특유의 시원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대부분의 독재자는 다 키가 작아요. 뚱뚱한 중년에다가 머리술도 없죠. 그런 배역엔 데니 드비토 빼곤 오직 제가 적임자죠.” Most dictators were short, fat, middle-aged and hairless. Besides Danny De Vito, there's only me to play them.

실제로 그는 스크린과 TV를 넘나들며 악명 높았던 FBI 국장 J. 에드거 후버와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를 연기하기도 했지요.

내각 탄압 스타와 병언

폭력영화의 대가 폴 버호벤

폭력적이고 창의적이며 지적인 SF 영화감독의 거장을 꼽으라면 누구나 폴 버호벤을 거명할 것입니다. 흥행에서도 대성공한 <로보캡Robocop>, <스타쉽 트루퍼스Starship Troopers>, <할로우 맨Hollow Man> 등으로도 유명하지만 <토탈 리콜Total Recall>의 속편으로 <마이내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를 찍고 싶어 했던 일화도 유명하지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메가폰이 넘어가서 꿈이 무산됐지만요.

폴 버호벤은 네덜란드 시절부터 폭력적인 에로틱 영화를 즐겨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세계적인 에로틱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조 에스터하스와 만나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쇼걸Showgirls>을 찍기도 했고요. <쇼걸>의 국제 언론시사회international junket가 미국 LA에서 열렸을 때 폴 버호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며 가져왔던 저의 선입견과는 달리 그는 매우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폭력적인 영화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자 그는 뜬 한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진지한 의견으로는 영화는 오직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입니다.” People seem to have this strange idea that films can influence people to be violent, but in my sincere opinion film only reflects the violence of society. (4)



이미도
외화번역가·저술가·출판인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 지음



신임 2대 항공소년단 사무총장과의 만남

항공우주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하늘을 지배하고 우주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다양해졌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기능 및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기초과학의 인큐베이터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항공소년단'에 많은 기대가 한껏 모아지는 시점이다. 2007년 10월, 제2대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우규 씨에게 모든 기대의 시선이 한껏 쏠리고 있다. 성실성, 열정, 강한 홍보마인드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김우규 사무총장. 김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항공소년단의 새로운 비전을 알아보자. 원고정리 편집실

Q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하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중소기업의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한국항공소년단의 주요 실무를 맡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군의 경험을 되살리게 된 점도 매우 기쁘다.

Q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항공 및 우주교육 실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지금까지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탄생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국민적 관심에 비해 흠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항공소년단의 창설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준비되고 있으며 정부의 항공우주과학에 정책적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국내외 유소년 항공우주단체와 비교하여 본 단체의 차별화, 특성화 요소는 무엇인지?

A 현재 국내에 항공소년단과 유사한 단체가 있으나 우리는 항공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공군의 전폭적 지원하에 일차 항공우주 관련지식과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단원들의 직접적인 체험학습으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구체적 홍보 추진 전략이 있다면?

A 무엇보다도 후원금 확보, 탄탄한 조직결성, 홍보의 재생산이 중요하다. 특히 홍보의 경우에는 입소문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에서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 홍보의 경우 역시 행사, 직접방문, DM, e-mail, 팸플릿, 포스터 발송 등을 이용하여 항공소년단이 인지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때문에 1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후 홈페이지의 내실화를 기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싸이월드, 블로그, 카페, UCC 등을 활용하여 항공우주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Q 항공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은?

A 다른 청소년단체보다 탄성이 늦기 때문에 학교의 관심과 참여가 높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으며 또한 항공소년단의 위상확립 및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군가족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항공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항공가족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기부행사 및 자원봉사단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자녀들의 항공소년단 입단을 적극 권장하겠다.

Q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국가간 유소년 교류 프로그램 교류 및 체험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A 현재 약 20여 개국이 국제항공소년단협력기구(ACEA)를 구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호 교환 방문과 국제회의를 통해 항공소년단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항공우주선진국들은 항공소년단을 준 국가 단체로까지 격상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항공소년단도 이미 국제항공소년단에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9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를 시작으로, 11월초 ACEA 부총재가 방한하였을 때 내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협의를 했다.

Q 자라나는 청소년과 항공소년단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요즘 학생들은 게임 등을 통해 우주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항공우주분야가 바로 선진국의 척도이다. 열정이 있다면 항공우주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라.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면 우리가 이에 부응하여 만지고, 만들고, 탈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겠다.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적성에 맞다면 이것들을 소중하게 살려야 한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꿈을 현실화시켜 나가길 바란다. ☺

“항공소년단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 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F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 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 봉사활동



공사 로봇항공기 프로젝트팀 '마하수리'

- 제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베스트 디자인상 -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지난 10월 6일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는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산업자원부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3월 13일, 4학년 김선수 생도를 팀장으로 한 14명의 생도가 「마하수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결성하여 이 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였다. 6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직접 제작한 카나드형 모형항공기에 비행제어시스템을 장착한 무인로봇비행체를 완성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제작한 로봇항공기의 이름은 제작팀명과 같은 '마하수리'다. '마하수리'는 총 22팀이 참가한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초급부문 예선(기술심사)을 당당히 통과, 200만원의 기술지원금을 획득하였으며, 본선대회에 참가해서는 참가팀 중 유일하게 항공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상인 베스트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마하수리팀을 지도한 항공우주공학과 조환기 교수는 "참가팀 대부분

이 항공우주분야 석·박사들이다. 아직 학부생인 사관생도들이 이만큼의 성적을 거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라며 수상의 의미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기체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열린 2007 서울 에어쇼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홍보관에 전시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



제6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참가생도들

절벽^{絶壁}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꺼풀 한 꺼풀 옷을
벗고 있는 절벽의 몸은
쓰라리다
하루에도 수없이 쳐대는
물결, 온몸은 형체도 없이
으스스리고
그 파편은 절벽의 몸에
박혀, 날카로운 햇살을
튀겨낸다.

절벽의 다리가 어둡다.

글 대위(진) 장동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도전이 있는 곳”, 제18전투비행단

글 소장(진) 이영만 | 제18전투비행단장

2005년 11월, 대관령을 넘어 나타나는 끝없는 고산준봉들과 일망무제의 바다가 어우러진 강릉의 풍광은 나를 다시 설레게 만들었다. 사실 나에게 강릉길은 초행이 아니었다. 초급장교와 비행대대장 시절을 18전비에서 보냈던 나에게 강릉은 운명적인 곳과도 같았다. 하지만 동북부 영공 방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에 나는 마냥 가벼운 감상에 빠져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강릉을 떠난 1998년 이후 설해와 수해, 태풍 등 유독 많은 자연재해가 강릉 지역을 거쳐 갔다. 이 곳 장병들은 불굴의 의지로 다가오는 도전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이로 인해 쌓이는 피로와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병들은 밤새 쓸어도 잠시만 돌아서면 수북히 쌓이는 눈처럼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지쳐있는 듯했다. 어느새 강릉기지는 전입해 오는 장병들에게 근무하기 힘든 부대로 소문이 났고, 기지에 대한 선호도 또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18전비에 대한 편견과 안겨지는 시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만이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가치 기반의 강한 동력이 필요했으며, 변화와 혁신은

필연적이었다. 우선 부대의 장점과 강점을 살리면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부대의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을 부대원들에게 제시하였다. 'EASTAR 2020'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 장기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재난재해에 취약한 곳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각 개선해 나갔다.

또한 강릉의 지리적 특성상 문화 예술 공연의 유치가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음악회, 남사당패 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들을 펼쳐 장병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였고, 장병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알차고 생산적인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비행단 건설”, 어느 정도 비행단의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때 장병들에게 제시한 18전비의 새로운 비전이었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했다. “강하고 활기찬 비행단”, 강한 전사를 육성하고 활기가 넘치는 부대를 만들어서 비전과 꿈에 도전하자는 목표였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강하고 활기차게 전개되었다. 비행단의 혁신을 디자인하고 선도할 혁신업무기획팀, 성과관리팀, 운영평가팀이 구성되어 매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개혁안과 실천 계획을 추진·점검하기 시작했다. 수해에 대비하여 단순히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방재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시행해 나갔다. 이런 가운데서도 동북부 영공방위라는 주 임무달성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변화와 혁신은 어느새 꽤 큼직한 결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난 1월 비행단 6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시작으로 2월에는 205대대가 단일대대·단일기종으로는 최초로 1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다. 무사고 비행을 위해 조종사와 정비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이어서 전투태세검열과 보안감사에서는 우수 부대로 선정되었고, 9월 대공사격대회에서 대공방어대가 1위를 차지하였다. 강한 부대 건설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는 제59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지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헌신이 빚어낸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보다 고무적인 것은 장병들

의식속에 내재되어 있던 무기력증과 패배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재난재해를 극복하려는 부대원들의 도전의식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는 비행단의 활력을 놀라우리만큼 증대시켰다. 전입하는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자 보면 18전비에 자원하여 왔다는 장병들이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전 장병 및 군무원은 비전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강한 부대, 경쟁력 있는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편견과 시련에 대해 불굴의 도전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난 2년간 18전비는 질푸른 바다만큼 높푸른 창공 위에 신화에 가까운 일들을 새겨나갔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중심의 규율 문화를 더욱 조성해 나갈으로써, 사건사고 없는 좋은 부대를 넘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비행단' 건설이라는 위대한 부대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야 한다. 공군의 최선봉에서 힘차게 비상할 18전비 독수리들의 아름다운 비행이 한반도의 푸른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날을 기대해 본다. **At**



제59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빨간 마후라의 고향, 4대 핵심가치의 요람

- 제18전투비행단 -



“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제18전투비행단 시설대대장 중령 이종국

우리 비행단은 태풍 루사와 매미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체로 대증 요법에 그치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근본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안을 토론을 통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배수로가 막혀있고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하류 구교량이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농촌공사 강릉지사와 강릉시청에 보수 및 시설공사를 요구한 결과 섬석천의 범람한 월류수를 하시동천으로 강제 배수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0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작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겨울에도 다시 찾아올 집중호우와 태풍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강릉기지! 지금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도전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

제18전투비행단 군수전대 주임원사 정영민

지난 2월 우리 무장대대원들은 우연한 기회에 전기장판 하나로 손녀와 같이 겨울을 나고 있다는 어느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무장대대원은 그동안 조금씩 모아오던 불우이웃기금 100만원을 이용해 연탄보일러를 직접 설치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리의 땀과 정성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치자는 생각에 감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4개월 만에 감자를 수확하게 되었고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에는 모든 군수전대원들이 장애인 3가구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였다.



헌신은 사전적 의미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물질적 부보다 마음의 부를 먼저 찾고 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바로 헌신적인 삶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공방어의 스페셜리스트”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장 대위 남형주

2007년 9월 12일, 제18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는 '07년 발칸 대공사격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기쁨도 큰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려 12년만에 이룩한 최우수라는 것과 불과 2년 전인 '05년에 꼴찌를 한 이후 단 2년만에 최우수로 도약했다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러웠다. 2년 전 우리는 태풍 루사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간부와 병사 간의 난상토론, 계급별 간담회, 강도 높은 해양훈련과 기지 구부로 장병들의 정신력과 단결이 점차 강화되었다. 또한 자율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최우수의 타이틀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공방어 스페셜리스트라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18전비 대공방어대가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최강의 방어전력을 구축하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하나 되는 공군 18전비”

제18전투비행단 주임원사 김재환

그동안 우리 18전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입 장병들의 배속지 선정 시 선호도가 다소 낮은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대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비행단”이라는 비전과 “강하고 활기차게”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비행단 전체의 활력 넘치는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 웃는 출입증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다. 웃는 출입증 사진 촬영으로 그동안 딱딱하고 강압적인 군대의 이미지와 軍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동기과 선후임 간의 돈독한 전우애가 짝뜨게 됨으로써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추천을 받고 전입해오는 신병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효과들은 서로의 출입증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은 상대방에게 가졌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소극장에서 뮤지컬을?! 대학로의 자존심,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6 한국뮤지컬대상'

대학로의 한 뮤지컬이 수십억대의 자본이 투입된 뮤지컬 시장에서 큰일을 냈다. 소극장 공연, 4인조 밴드, 7명의 출연자는 브로드웨이에서 건너왔다는 뮤지컬들을 보기 좋게 '눅다운' 시켰다. 그러나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이라고 해서 뮤지컬의 트레이드마크인 화려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이다. 오히려 춤, 노래, 스토리가 소극장 무대에 맞게 더 섬세하게 연출됐다. 이를테면 무대가 바뀌는 동안 우체부가 관객들이 쓴 편지를 무대에서 직접 읽고 배달 해줘 객석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렇다면 뮤지컬 제목이 <오! 당신이 잠든 사이>인 까닭은? 바로 여자 주인공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들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뮤지컬은 가톨릭재단 무료병원의 신부와 의사, 환자, 봉사자들의 이야기다. 병원의 원장인 신부가 기부금 조성을 위해 602호의 환자를 다큐멘터리에 출연시키려고 하지만 어느 날 환자가 없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다. 재밌는 사실은 없어진 환자는 척추마비의 반신불수 환자라는 사실!

뮤지컬 역사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동을 약속하는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쌀쌀해진 날씨를 후끈 달아오르게 할 유쾌한 열정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기간 2007년 7월 25일 ~ OPEN RUN 장소 대학로 르메이에르 소극장 문의 (02)744-7090



축구마니아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대 축구뮤지컬 <뷰티풀 게임>

축구마니아들을 위한 춤, 노래, 스토리가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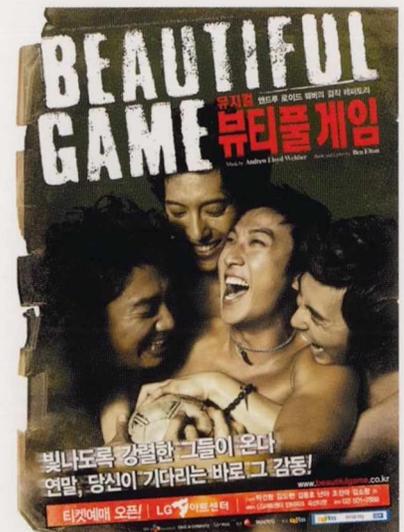
'오페라의 유령', '캣츠', '에비타' 등을 작곡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내놓은 축구뮤지컬 <뷰티풀 게임>. 그라운드 열정이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노래될 지 주목된다.

이 뮤지컬은 1970년대 북아일랜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벨파스트 축구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축구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에 강렬한 음악과 파워풀한 안무가 더해져 뮤지컬이 마치 한 편의 축구를 보는 듯하다.

그 동안 스크린과 무대를 중흥무진했던 뮤지컬 스타 박건형이 3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와 하는 첫 작품이며, 축구동작을 모티브로 한 '사커댄스' 등이 공연된다. 특히 군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구에 감동이 더해져 축구에 큰 관심이 없는 여자친구를 축구마니아로 만들 수 있는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게임'이다.

탄탄한 자본금과 최고의 연출진들이 만들어내는 2007 뮤지컬계의 마지막 히트 카드 뮤지컬 <뷰티풀 게임>! 스포츠와 뮤지컬이 말할 수 있는 모든 희열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자.

기간 2007년 11월 16일 ~ 2008년 1월 13일 장소 서울 LG아트센터 문의 (02)501-7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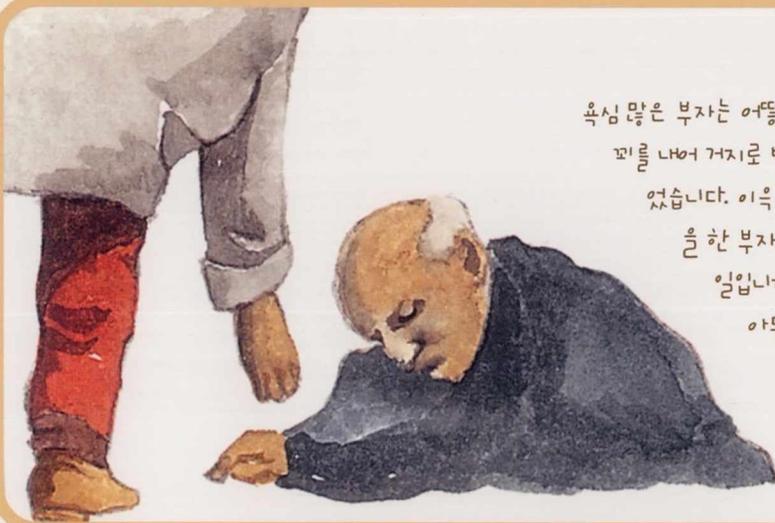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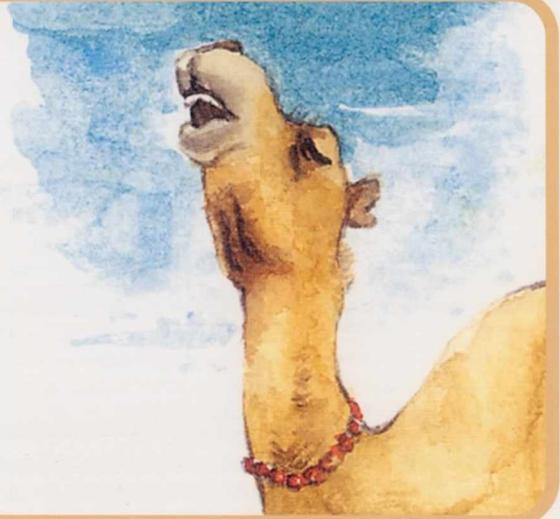
백려의 힘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옛날 아주 멋진 낙타를 가진 이란비아인이 있었습니다. 낙타가 어찌나 잘생겼는지 그 낙타를 본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탐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그를 찾아와 금은보화를 내어 놓으며 자신에게 낙타를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낙타를 자신의 분신처럼 이겨온 이란비아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며칠 동안 그를 다시 찾아가 낙타를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代價)라도 치를 테니 제발 낙타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지만 이란비아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어떻게든 그 낙타를 자신의 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피를 내어 거지로 변장하고 낙타 주인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엮드려있었습니다. 이윽고 낙타를 탄 이란비아인이 저런치 나타내자 변장을 한 부자는 아픈 듯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이란비아인이 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자는 기운이 없는 척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낙타에서 내린 이란비아인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집에 데려가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자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낙타 위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 데다 싶어 "이리"하며 낙타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찼고, 낙타는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비아인은 그때서야 부자의 꾀를 알아차리고 죽은힘을 다해 뒤쫓아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낙타가 탐내다면 나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당신이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낙타를 빼앗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듣자 부자는 고삐를 당겨 멈추고는 낙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그렇게 창피한가?"

그러자 이란비아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이 알려지면 정말로 병들고 가진 것 없는 거지가 길가에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부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는 이란비아인에게 조용히 낙타를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당한 방법으로 이란비아인의 낙타를 빼앗은 부자와 빼앗긴 자신의 낙타를 도찾기 보다는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이란비아인의 일화를 통해 남을 위한 바려의 마음만큼 주위를 감화·감동시키는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Copying Beethoven

- 영화 「카핑 베토벤」을 통해 반추해 보는 베토벤의 열정

글 정홍래 | 서울대학교 음악학 석사

깊어가는 가을... 이 가을에 어울리는 작곡가로 브람스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고독과 우수로 가득한 브람스의 음악은 가을에 유난히도 자주 연주되기 때문이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양식을 서정성 속에 녹여낸 브람스의 음악은 많은 음악가와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브람스를 평생 괴롭힌 사람이 있었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빈에 있는 브람스의 음악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랜드 피아노 뒤쪽의 벽에 흉상이 하나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작곡하는 브람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매일같이 등 뒤에서 그를 감시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브람스는 작곡을 하는 내내 이 사람에게 신경이 쓰였

을 것이다. 브람스의 음악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 분명한 이 조각상은 바로 베토벤의 흉상이다.

베토벤에 대해서는 지난 9월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 지난 10월 베토벤과 관련된 영화가 한편 개봉되었다. 청력을 상실한 베토벤이 교향곡 제9번을 완성하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곁에서

음악 사보를 도왔던 여성 카피스트(Copyist) 안나 홀츠(Anna Holz)의 이야기를 다룬 〈카핑 베토벤〉. 안나 홀츠는 카피스트이기도 하지만, 교향곡 제9번의 초연에서는 베토벤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도록 돕는다.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안나 홀츠의 도움으로 베토벤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장면이다. 상상해 보라.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듣지 못하는 베토벤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영화와 다르게 실제로, 교향곡 제9번의 초연은 움라우프(Michael Umlauf)가 맡았으며, 안나 홀츠라는 인물이 지휘를 돕지 않았다. 그렇지만 병들고 노약한 카피스트로 영화에 등장하는 쉴레머(Wenzel Schlemmer)는 25년 동안이나 베토벤 작품을 필사하다가 1823년에 병환으로 사망한다. 그런데 베토벤이 교향곡 제9번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1823년이었기 때문에, 베토벤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맞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토벤의 곁에 안나 홀츠가 있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발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교향곡의 초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환호를 듣지 못하는 베토벤을 여성 콘트라alto인 캐롤라인 운어(Caroline Unger)가 무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관객들의 환호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실화도 이 영화와 연결되어 있는 한 장면이다.

이와 같이 실화를 바탕으로 허구가 가미된 이 영화에는, 교향곡 제9번과 후기의 현악사중주 작품들이 그의 삶, 예술 혼과 함께 스크린 속에 탁월하게 녹아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청력을 잃어 자신이 작곡한 음악도 듣지 못하는 불운의 작곡가, 타인의 입 모양을 관찰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회에서 소외된 이방인, 노년이 되도록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혈육인 조카에게도 이용만



당하는 불쌍한 노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온갖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인간이 이룩해 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여 인간의 음악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 올린 음악의 성인(聖人).

이러한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화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베토벤과 안나 홀츠 사이의 대화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교향곡 제9번의 초연 장면 이후 현악사중주와 함께 흐르는 베토벤과 안나 홀츠의 대화는 영화에 깊이를 더한다. 다음은 현악사중주에 대한 베토벤과 안나 홀츠의 대화.

“악장이 어디서 끝나죠?”

“끝은 없어, 흘러가는 거야. 시작과 끝에 대한 생각은 그만둬. 이걸 살아있는 거야. 마치 구름이 모양을 바꾸고, 조수가 변하듯이.”

“음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죠?”

“효과는 없어, 자라는 거지. 보라구, 첫 악장이 둘째 악장이 돼. 한 주제가 죽고 새로운 주제가 태어나지. 자네 작품을 봐. 너무 형식에 얽매어 있어. 적절한 형식을 고르는 데 말이야. 자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의 고요함을 찾아야 해.”

교향곡 제9번 초연 이후 베토벤은 난해한 음악으로 청중들과 멀어졌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스스로 청중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카핑 베토벤>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것은 “미래의 음악으로 가는 다리”였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베토벤의 심도 있고 난해한 음악은 그 이후 시기인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참 이후인 현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브람스 방의 흉상처럼, 많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베토벤은 평생의 도전의 대상이였는지도 모른다. 평생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영화 속 한 장면에 나오는 대화처럼, 죽음을 향해가는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인간의 세계와 차단되어 정말로 신의 숨결을, 신의 언어를 들었는 지도 모른다. 실제로 영화에 집중하면, 베토벤 역할을 맡고 있는 에드 해리스(Ed Harris)가 교향곡 제9번을 초연으로 지휘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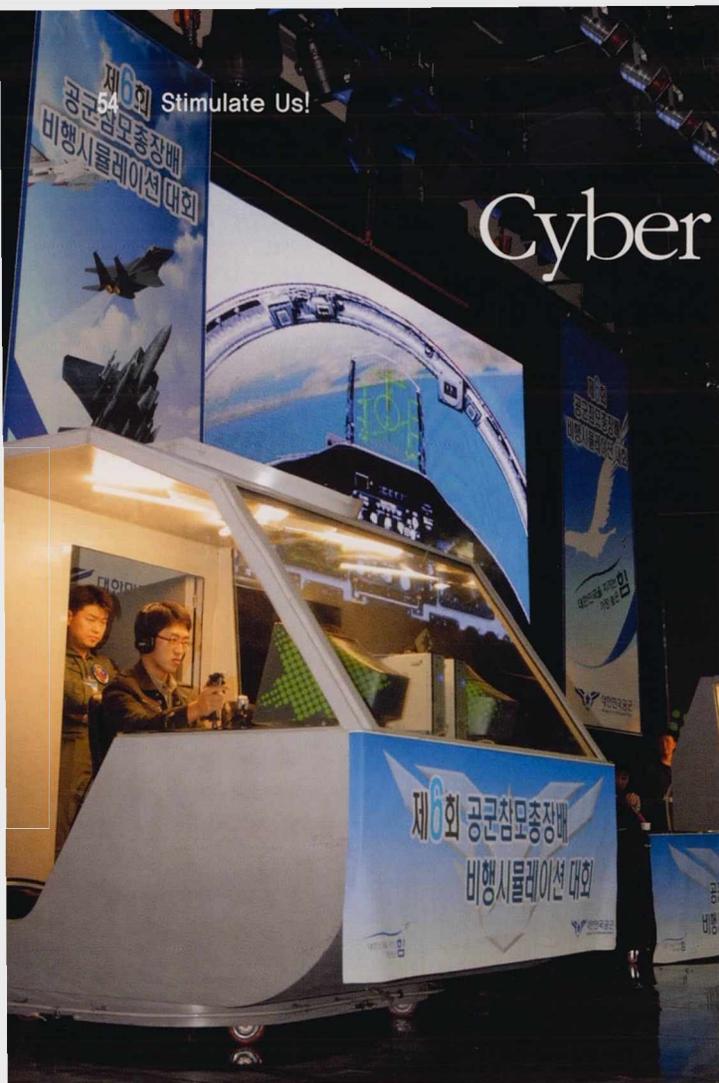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에 이르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음악가들 또한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이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전개,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성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경건함.

베토벤 음악의 이러한 특징은 '현악사중주'에 잘 나타나며, 특히 현악사중주 '대푸가(Grosse Fuge, op. 133)'는 영화의 후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바이올린 두 대, 비올라, 첼로 이렇게 네 대의 악기로 구성되는 현악사중주는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풍부한 악상과 깊은 표현력을 지녀, 베토벤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이 선호하는 악기편성이다. 이 영화에서도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와 더불어 후기에 작곡된 현악사중주 작품이 시종일관 흐르고 있다.

19세기 초의 비엔나를 배경으로, 괴팍한 노장 베토벤의 불후의 명작들이 여성 영화감독 '아그네즈카 홀란드'의 섬세한 터치로 되살아난 영화 <카핑 베토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섬 없이 흐르는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베토벤에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





Cyber 항공의 최강자

- 10월 7일,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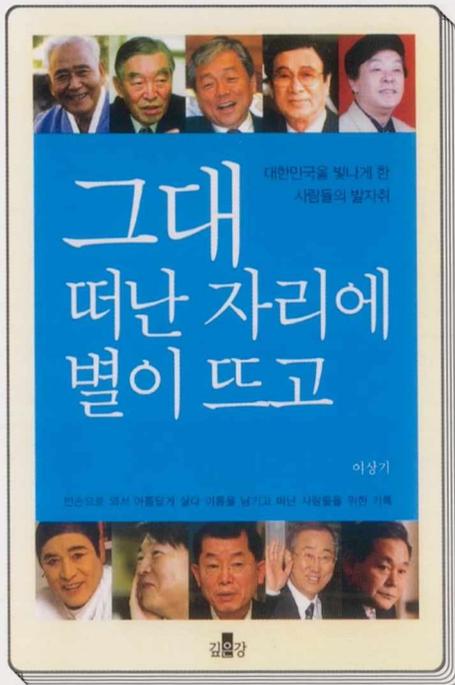
원고정의 편집실 | 사진 중사 편보현

비행시뮬레이션 마니아들의 축제인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비행시뮬레이션대회』가 10월 7일 서울 용산 e-Sports 스타디움(용산역 I-PARK 몰)에서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본 대회는 국민들의 공군 및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비행의 기초원리부터 전문적인 전투분야까지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했다.



참가 종목은 ▲ F-15 2:2 공중전 부문 ▲ F-16 공대지 공격 부문 ▲ 일반 레이싱 부문 등 총 3개 종목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기존에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대회가 운영되다 보니 초보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일반 레이싱 부문을 신설, 많은 일반 국민들의 참가를 유도했다는 점이었다.

대회는 시종일관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는 주제로 비행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동영상 공모전, 조종복과 항공장구를 착용한 후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군 e-Sports ACE팀 강도경 상병과 최인규 상병 간의 1:1 시범경기 및 팬 사인회를 비롯, 비행시뮬레이션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 전시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통해 대회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 F-15 2:2 공중전 부문_변성보 씨 ▲ F-16 공대지 공격 부문_지용진 씨 ▲ 일반 레이싱 부문_유준우/염신복 씨 ▲ 동영상 공모전_변재명 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전 입상자들에게는 항공생리훈련의 기회가 부여되고 시뮬레이터 탑승, 항공기 및 무장전시 견학 등 전투비행단 방문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



이상기 지음

그대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

글 중령 강성구 | 공군본부 비서실

에 소개되는 17명의 주인공들 중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이들의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이다. 특이한 것은 아직 생존해 있는 17명의 인사들에 대한 추모사가 미리 실려 있다는 것이다. 반기문, 엄홍길 등 우리의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존경할만한 분들에 대한 추모의 글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신의 삶을 返照하게 해준다.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자신의 일에 一心을 바쳐 정성을 다함으로써 이 사회가 바르고 건강해 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58분에 대한 이야기는 때론 감동으로 때론 웃음으로 때론 애절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특히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하늘에서 산화한 우리 전우 故박인철 대위 편은 홀로 남겨진 박 대위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며 읽는 이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春生秋殺이라고 했던가. 봄은 생명을 살려내고 가을은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진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存在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우리네 인생도 그 순리에 따라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한겨울 동안 그 뿌리에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새 봄을 맞아 다시 잎을 피워내듯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소중히 간직했던 많은 '소망' 들은 또 다른 生の 後進들에게 새싹을 틔울 힘을 줄 수 있다는 '희망' 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보다 위대한 책은 없다는 警句처럼 독자들은 이 책 한권을 통해 58권의 감동적인 책을 접하게 되리라 본다. 언론인들의 펜 끝에서 나오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혐오스런 사건들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이 책은 언론의 역할이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다행스러움을 느끼게 해준다. ㉠

1993년 충주비행장 정훈참모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이야 '상병진급 캠프' 처럼 공군만의 특화된 좋은 정신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천편일률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장병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정훈장교들이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는데 어느 동료 한명이 종교 단체와 청소년 단체에서 만들어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공군의 팀워크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전 공군에 확산시킨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조국과 공군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 중에 弔辭쓰기는 많은 장병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준 프로그램으로 기억된다. 자신이 죽었을 때를 가정하여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知人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쓰고 낭독하는 형식인데 상당수의 장병들이 조사를 낭독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삶을 중간 중간 되돌아 볼 기회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댄 '지금 내가 죽는다면 주변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까' 의 질문에 턱하고 숨이 막히지 않았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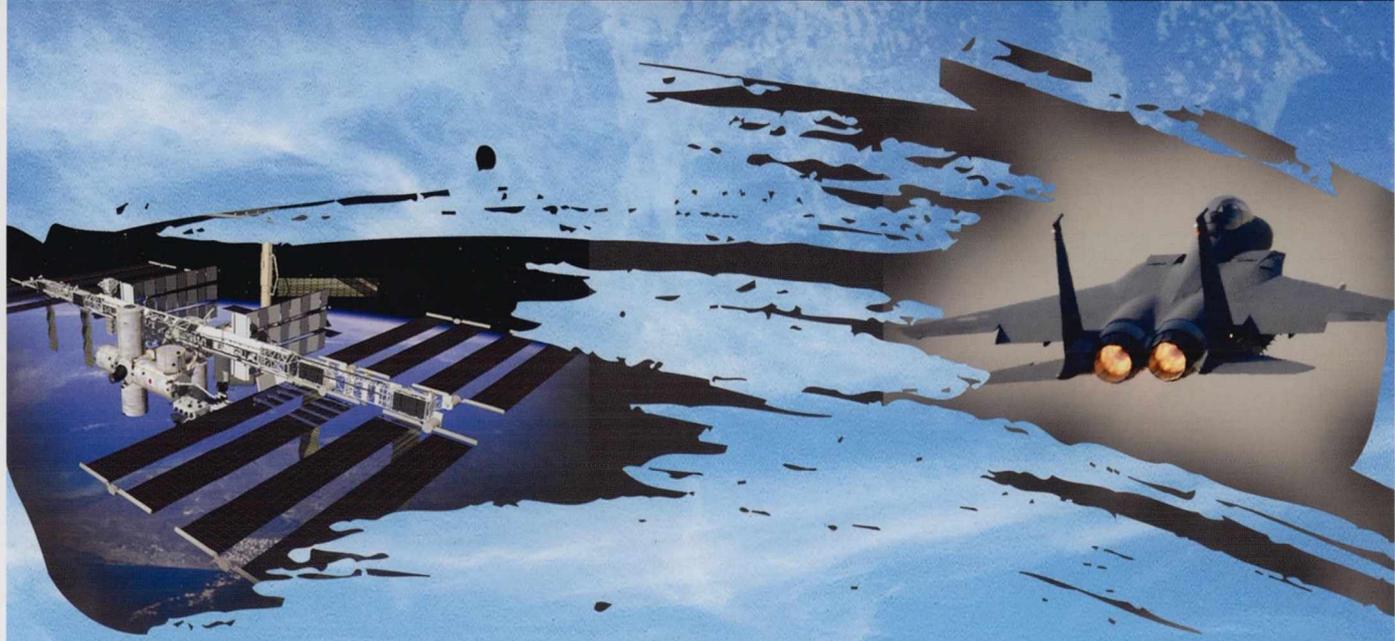
이 책은 한겨레신문의 중진 기자인 이상기 편집장이 신문

제10회 공군력 국제 학술 회의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ir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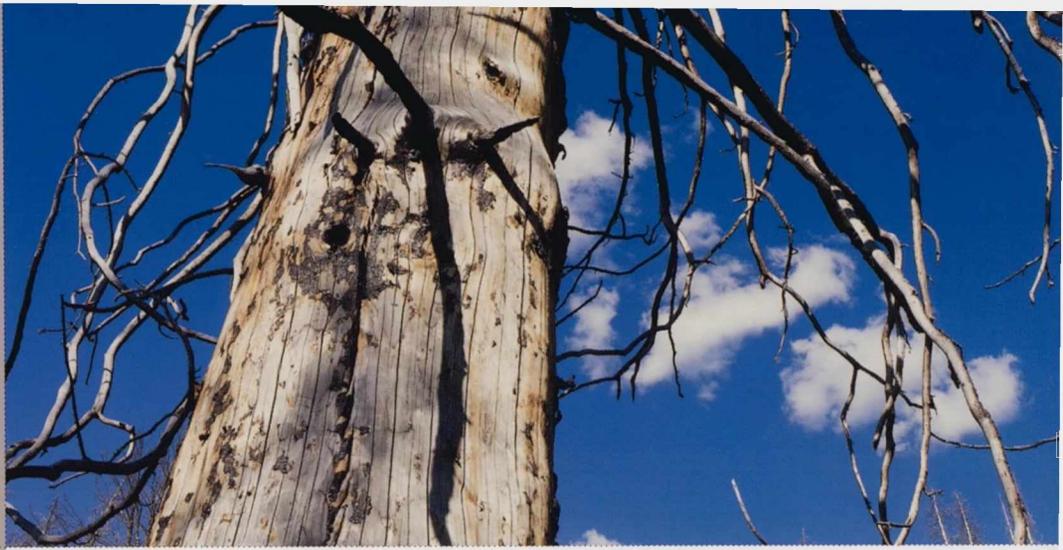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력구조 발전방향

The Direction of Growth for Military Structure in the Asia-Pacific era for National Security

- 국방개혁 2020을 위한 합동성 제고방안 -
- Jointness Enhancement for Defense Reform 2020 -

- 
- 일 시 : 2007년 11월 15일 ~ 16일
 - 장 소 : 공군회관 국제회의실
 - 주 최 : 연세대학교 BK-21사업단
 - 후 원 : 공군본부
 - 협 찬 : 한국항공우주산업,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연세대학교 BK-21사업단
BK-21 Team, Yonsei University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7. 6. 1~2008. 5. 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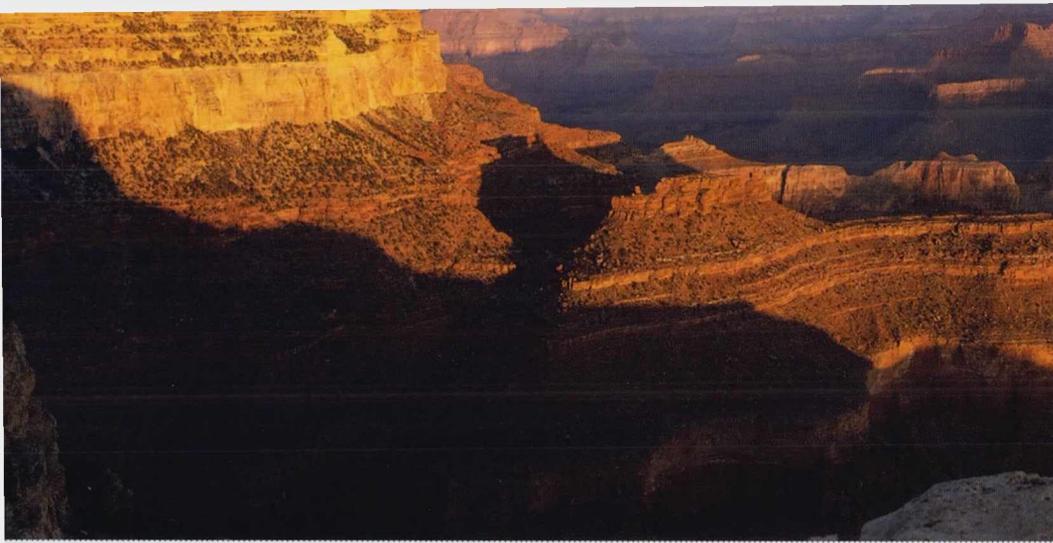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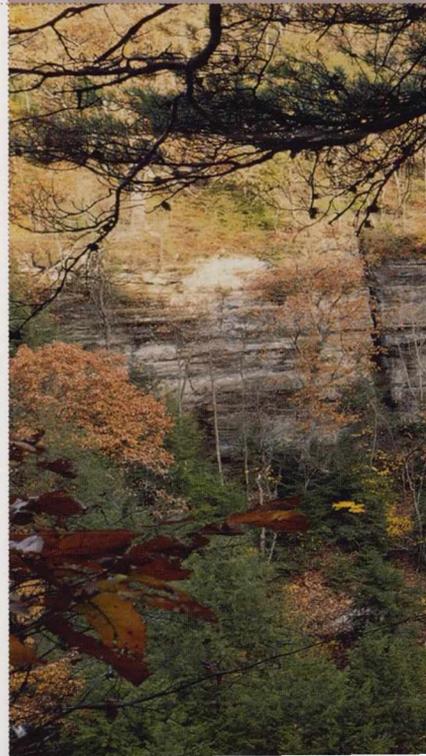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11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1월 20일까지

1.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자주국방과 산업발전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명칭은?
2. 공군의 역할과 항공 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을 전파할 공군의 새로운 두 얼굴로, 한 명은 현재 드라마 '왕과 나'에서 성종 임금 역으로 열연 중이며 또 다른 한 명은 '하늘만큼 땅만큼'에서 석지수 역으로 열연하였다. 두 공군 홍보대사의 이름은?
3.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주개발사업에 있어 국가적인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인 국가우주자산 활용을 위해 공군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2007년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서울에어쇼 2007
2.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3. 화성

당첨자

충청북도 충주시 상병 신승엽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박영란
전라북도 전주시 김수연
경기도 성남시 전재우
경상북도 경주시 최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성진
충청북도 청원군 유호철



SOARING EAGLE PROJECT

발간등록번호
38-1600006-000001-06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비상하는 조수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